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6년 9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개황 · 동향 제목 · 동향 개요 · 주간 보도일지 · 주요인물 동정

o 언어표현: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 중 우리식 표현이 없거나 북한의 고유명사인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북한 표현 그대로 사용

나. 대내 · 대남 · 대외 동향 주요 내용

o 언어표현·인용부호: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는 삭제
ex)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② 국내 주요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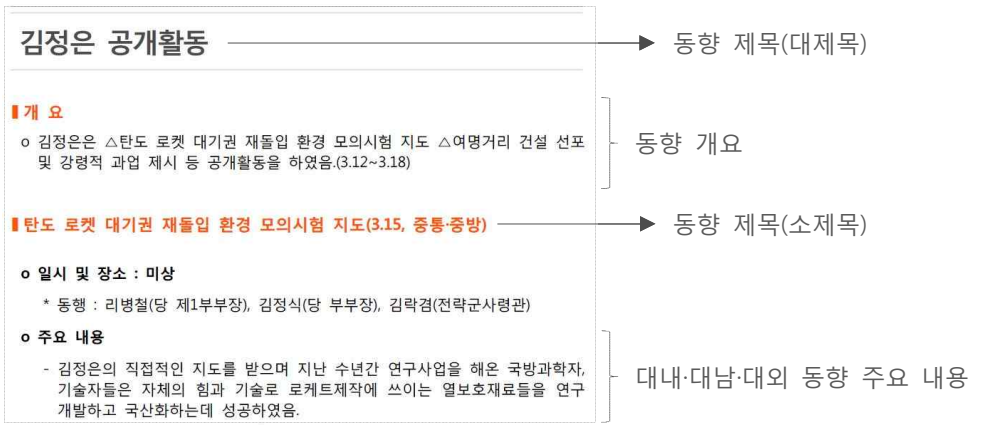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북한식 표현 설명

-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o 띄어쓰기: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개황

대내동향

6 김정은 공개활동

6 SLBM 발사 성공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7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 현지지도

8 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8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지도

9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10 서해 위성발사장을 방문

12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12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지도

13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

15 함경북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 총력

22 정권 수립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24 「핵무기 연구소」 성명

25 핵탄두 폭발 실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28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진행

29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 전달

대남동향

31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32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33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백서

35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37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호소문

Contents

38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북·해외 본부」 공동 결의문

39 「민화협」 경고장

40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43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45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46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4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49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51 「농근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대외동향

52 「외무성」 대변인 담화

55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59 리용호,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

62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

64 리용호,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연설

66 「국제문제 연구소」 비망록

68 **주요인물 동정**

84 **월간 보도일지**

130 **금월의 약사**

개황

대내동향

김정은 공개활동

o 김정은은 △ SLBM 발사 성공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 현지지도 등의 공개활동을 하였음.(9.1~9.9, 중통·중방·평방)

o 김정은은 △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9.10~9.16, 중통·중방)

o 김정은은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등의 공개활동을 하였음.(9.17~9.23, 중통·중방)

o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공장 △용악산 샘물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9.24~9.30, 중통·중방)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복구 총력

o 北,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보도 △홍수 피해 복구 사업 집중 및 조선 적십자회 긴급구호 활동 전개 보도(9.2 ~ 8, 중통)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관련 △「노동당 중앙위」, 전체 당원·인민군 장병·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9.10, 중통·중방) △전력 및 식수 공급(9.13, 중방) 등 보도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관련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 완료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사이 철길 복구 △기계공업 부문에서 피해 복구 전투에 총력 집중 △수풍발전소, 북부 피해지역에 전기 송출 △철길 복구 사업 성과적으로 진척 △시멘트 선적 선박, 남포항에서 출항 △국가과학원 연구사들, 과학 연구 성과로 지원 △박봉주 내각 총리, 남포항 및 원산항 현지 요해 △많은 양의 교과서 및 참고서, 교육기자재 긴급 수송 등 보도(9.17~23, 중통·중방)

o 평안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도에서 북부 피해 복구를 위해 계속 지원 보도(9.25, 중통)

정권 수립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o 정권 수립일(9.9)을 맞아 중앙보고대회 진행(9.8, 중방·평방)

「핵무기 연구소」 성명

o 5차 핵실험 공식 발표(9.9, 중통·조중TV)

핵탄두 폭발 실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o 9월 13일 김일성 광장에서 '핵탄두 폭발 실험(9.9)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진행(9.13, 중방·중통·조중TV)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진행

o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진행 보도(9.26, 중통·중방)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 전달

o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즈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9.27) 전달(9.30, 중통·중방·평방)

대남동향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200일 전투 관련 우리나라 일부 언론 보도 비난(9.1, 중통)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o '북한인권법' 시행 관련 우리정부 및 대통령 비난(9.1, 중통·평방)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백서

o 'UFG' 연습 관련 백서 발표(9.1, 중통)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o 주한미군 주둔 비난 및 철수 주장 호소문 발표(9.7, 중통)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호소문

o 남·북·해외 청년들의 "청년 통일 대회합" 제안(9.7, 중통)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북·해외 본부」 공동 결의문

o 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반미 투쟁' 선동(9.8, 중통·중방)

「민화협」 경고장

o 우리 대통령의 대북 발언 관련 원색 비난(9.10, 중통)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대북 발언 관련 원색 비난(9.12, 중통)

o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북 발언 비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총회에서의 '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 발언 관련 비난 및 위협 (9.24~30, 중통·중방·평방)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o 우리 정부의 '北 5차 핵실험 대응'과 대북 발언 관련 비난 및 위협(9.13, 중통·평양·중방)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o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계획 관련 비난 및 反정부 투쟁 선동(9.15, 중통·중방)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우리 대통령의 北 5차 핵실험 관련 발언(안보 위기 상황, 국가 비상체제 언급 등)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9.19, 중방·중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o 韓美의 5차 핵실험 대응(수뇌부 제거 언급 및 美 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 등) 관련 비난(9.22, 중통·중방)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北 수해 관련 우리 정부 태도 및 언론 보도 내용 비난(9.22, 중통·중방)

「농근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백남기씨 사망 관련 반정부 투쟁 선동(9.29, 중통·중방·평방)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주한미군 철수 주장 △美 대통령의 '北 탄도 미사일'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 발언 비난(9.7~8, 중통·중방)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美 대통령의 對北 핵실험 규탄 성명(추가 제재 등 중대 조처) 관련 위협(9.11,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9.6)' 전면 배격 및 '핵 무력 강화 계속 확대' 강조(9.7, 중통·중방)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美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정부군 기지 오폭' 관련 비난 △美 국무장관 발언(도발, 무모한 행동 등) 관련 위협(9.17~23, 중통·중방·평방)

리용호,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

o 리용호(외무상),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9.15~16) 연설을 통해 '北 5차 핵실험' 정당성 강변 및 UN 안보리의 "불공정" 주장(9.16, 중통·중방)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

o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9.17)에서 '北 5차 핵실험 당위성' 강변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장(9.19, 중통)

리용호,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연설

o 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 제71차 회의(9.23)에서 '핵 무력 강화' 주장 연설(9.24, 중통)

「국제문제 연구소」 비망록

o 국제문제 연구소, '인류 역사에 피로 얼룩진 만고의 핵 범인 미국의 죄악을 고발한다'며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모든 것을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9.27, 중통)

대내동향

김정은 공개활동

▌개 요

o 김정은은 △ SLBM 발사 성공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 현지지도 등의 공개활동을 하였음.(9.1~9.9, 중통·중방·평방)

o 김정은은 △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9.10~9.16, 중통·중방)

o 김정은은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등의 공개활동을 하였음.(9.17~9.23, 중통·중방)

o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공장 △용악산 샘물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9.24~9.30, 중통·중방)

▌SLBM 발사 성공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9.1, 중통·중방)

o 일자 및 장소 : 미상

* 참가 : 리만건, 리병철, 노광철 등

o 김정은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o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 기술을 완성하여 핵 공격능력의 일대 과시로 되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준 특별감사를 받아 안은데 이어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었음.

o 김정일의 핵 무력 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전략잠수함 건조와 탄도탄 제작을 위해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노고를 바치고도 그 모든 성공과 승리의 단상에 자기들을 내세워주는 김정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열광적으로 환영함.

o 김정은은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나라를 천하

무적의 군사강국, 로케트 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o 참가자들은 우리 식의 다양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힘 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함.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 현지지도(9.6, 중통)

o 일자 및 장소 : 미상

* 참관 :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일군들

* 맞이 : 김락겸, 박영래,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

o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였음.

o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음.

-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배비한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케트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 포병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음.

o 김정은은 발사장에 도착하여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 계획과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케트들의 전술 기술적 제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1]한 다음 전략군 사령관에게 발사 훈련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주었음.

- 김락겸 대장의 화력 타격 개시 구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원쑤 격멸의 세찬 불줄기를 토하며 탄도 로케트들이 련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며 푸른 하늘을 가득 메웠음.

o 훈련에서는 화성 포병부대의 로케트 실전 운영 능력과 탄도 로케트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였음.

-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 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였음.

o 김정은은 탄도 로케트 련발 발사 훈련이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 화성 포병들을 뜨겁게 축하하였음.

1) 료해 : 『북한어』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봄.

- 김정은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의 뢰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력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 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체적 핵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사적 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9.13,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미상

* 동행 : 황병서, 오수용, 조용원, 한광상

* 맞이 : 현지 해당 단위와 농장 일군들

o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여러 차례나 현지지도 하면서 나라의 종합적인 종자연구 개발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었으며 온 나라에 이 농장을 따라 배우기 위한 불길도 지펴주었음.

o 김정은은 농장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밭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면서 올해에 수확한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았음.

- 김정은은 1116호 농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 방침의 승리라고 하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를 육종해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었음.

o 김정은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경지 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자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1116호 농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불멸의 령도 자욱을 새기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김정은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지도(9.15,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미상

* 동행 : 최태복, 강봉훈, 마원춘

* 맞이 : 현지 해당 부문과 공장 일군들

o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김정은은 보건 산소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고 평양시 교외의 명당자리에 공장 부지도 잡아 주었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공화국 창건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공장건설을 끝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의 지도 관철에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보건 산소공장을 먼 후날에(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o 보건 산소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들이 자동화, 콤퓨터화 되였으며 병원들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산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생산 및 공급 기지임.

o 김정은은 보건 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들에도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생산 기지를 일떠세울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 김정은은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속에 현대적인 보건 산소공장도 일떠섰다고 하면서 이 공장에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 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집약되여 있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보건부문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보건이 사회주의제도의 얼굴이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보건 산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보건 산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 찾아와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긴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의 지도를 철저히 관철할 결의를 다지였음.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9.18,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강원도 고산군, 일시 미상

* 동행 : 황병서, 서홍찬

* 맞이 : 함종철(고산군 위원회 위원장), 해당 부문과 농장 일군들

o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려고 마음 쓰는 김정은의 헌신과 로고 속에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고산 땅이 생겨 처음 보는 희한한 과일대풍이 들었음.

o 김정은이 고산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김정은은 농장종업원들이 온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고산 과수종합농장에 어려 있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았음.

o 김정은은 새로 건설한 과일 보관고를 돌아보고 '618 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천t 능력의 현대적인 과일 보관고를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고산 과수종합농장을 세계 굴지의 청춘 과원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고산 과수종합농장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고산 과수종합농장에서 이룩된 과일 대풍 소식이 전해지면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하도록 기쁘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고산 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민 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과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과일생산 기지로,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준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9.20, 중방·중통)

o 일시 및 장소 :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시 미상

  * 맞이 : 리병철, 김정식,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국가 우주개발국 일군들

o 우리 당의 웅대한 우주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평화적 우주 리용 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는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 운반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음.

o 김정은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새 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하였음.

o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는 단일 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2]임.

- 이번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은 작업시간을 200s로 하고 발동기 연소실의 연소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계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믿음성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음.

o 김정은이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주었음.

-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뿜어져 나왔음.

- 새 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 값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작업 전 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 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였음.

- 대출력 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정지위성 운반로케트를 확고히 개발 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지구관측 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음.

o 김정은은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결사 관철한 국가 우주개발국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우주 과학기술과 우주 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면서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 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우주개발과 리용은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가 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나라를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당의 과학기술 중시로선이 관철되여 이번 시험성과에 토대하여 위성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적들의 비렬한 제재 압살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 매면서도 변심 없이 당을 따라 꿋꿋이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 소식을 안겨주자고 당부하였음.

- 국가 우주개발국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조선의 위성, 위대한 조선 인민의 위성이 보란 듯이 솟구쳐 올라 광활한 우주에로 또다시 진입할 력사의 순간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와 강위력한 국력을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음.

---

2) tf : '톤포스'로 지구의 표준 중력가속도에서 1톤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지는 힘.
1ton-force는 2,000 pound-force에 해당.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9.22,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일시 미상

* 동행 : 리만건, 홍승무

o 김정은이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은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 가슴은 끝없는 행복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었음.

o 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진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의 장쾌한 뢰성은 9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핵 공격 능력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힘 있게 떨친 자랑찬 승전포성이며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 대세력들의 면상을 후려갈긴 무서운 불벼락, 통쾌한 대승리임.

o 참가자들은 김정은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음.

- 김정은은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며 전투적 인사를 보내였음.

o 김정은은 실전화된 위력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통하여 주체의 핵 강국,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데 기여한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음.

- 김정은은 참가자들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당당한 핵 보유 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기념촬영이 끝나자 우렁찬 《만세 ! 》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음.

- 김정은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었음.

o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핵 강국 건설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음.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지도(9.24,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평양시 교외, 일시 미상

* 동행 : 서홍찬, 조용원

* 맞이 : 현지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

o 김정은이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o 평양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각종 주사기들과 점적[3] 기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의료기구 생산기지임.

o 김정은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장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적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일떠섰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종합지령실, 사출기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한 다음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서 주사기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각이한 규격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자면 공장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 지혜를 합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현대적인 기술 공정들을 꾸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최신 과학기술 성과에 기초한 현대적인 의료기구 생산 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주체보건, 인민보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은에게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은이 안겨준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룡악산 샘물공장(식수공장) 현지지도 (9.30,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평양시 룡악산, 일시 미상

* 동행 : 박봉주, 안정수, 조용원, 림준길

* 맞이 : 김수길, 공장 일군들

3) 점적 : 한 방울씩 물방울을 떨구는 것. 또는 그 물방울.

o 김정은이 룡악산 샘물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김정은의 뜻을 현실로 꽃피울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평양시와 공장,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일군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충정의 70일 전투 기간에 여러 대상들에 대한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를 끝내였으며 샘물 생산능력을 2배로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 김정은은 룡악산 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켰으며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늘여나감으로써 질 좋은 샘물을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통합조종실, 용기생산 공정, 원수 뽐프장, 샘물생산 공정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정형과 샘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 김정은은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 현장들을 철저히 격페(격폐)시키고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지휘와 제품관리, 작업현장의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룡악산 샘물공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데 대한 문제, 샘물을 제때에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등 과업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었음.

o 김정은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수질 좋은 천연 샘물이 많다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샘물생산 공장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o 김정은은 룡악산 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룡악산 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온 김정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를 다지였음.

함경북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 총력

▌개 요

o 北,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보도 △홍수 피해 복구 사업 집중 및 조선 적십자회 긴급구호 활동 전개 보도(9.2 ~ 8, 중통)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관련 △「노동당 중앙위」, 전체 당원·인민군 장병·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력 및 식수 공급 등 보도(9.10~13, 중통·중방)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관련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 완료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사이 철길 복구 △기계공업 부문에서 피해 복구 전투에 총력 집중 △수풍발전소, 북부 피해지역에 전기 송출 △철길 복구 사업 성과적으로 진척 △시멘트 선적 선박, 남포항에서 출항 △국가과학원 연구사들, 과학 연구 성과로 지원 △박봉주 내각 총리, 남포항 및 원산항 현지 요해 △많은 양의 교과서 및 참고서, 교육기자재 긴급 수송 등 보도(9.17~23, 중통·중방)

o 평안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도에서 북부 피해 복구를 위해 계속 지원 보도(9.25, 중통)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보도(9.2, 중통)

o 8월 29일(월)에 발생한 태풍 10호와 북서쪽에 형성된 저기압 마당이 합쳐지면서 29일(월)부터 9월 2일(금) 사이에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조선의 전반적 지역에서 센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음.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29일(월) 0시부터 9월 2일(금) 12시 사이에 함경북도의 경흥군과 부령군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320mm, 290mm임.
- 함경북도의 온성, 경성, 경원, 연사, 화대 그리고 량강도의 대홍단 등 여러 지방들에도 15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음.
- 두만강 류역에 관측 이래 가장 큰물이 발생하여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연사군, 라선시의 일부 지역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음.
-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임.
- 회령시에서 15명이 행방불명 되였음.
- 함경북도에서 8,670여동에 1만 7,180여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및 부분파괴 되여 4만 4,000여명이 한지에 나앉았음.
- 피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음.

- 수해지역들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함경북도 큰물 피해 복구 사업 집중 및 조선 적십자회에서 긴급구호 활동 전개 보도(9.6~8, 중통)

o 조선(북한)에서 함경북도의 큰물 피해 복구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 큰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파괴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음.
- 전국적 범위에서 지원 사업이 강화되는 속에 지원 물자들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닿고[4] 복구 사업에 필요한 건설 자재들이 긴급 수송되고 있음.
- 함경북도에서는 큰물 피해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 데 기초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보장하면서 피해 복구 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 파괴된 살림집들을 복구하고 철도와 도로, 다리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침수되였던 논밭들에서 고인 물을 뽑아 농작물 피해를 줄이며 부침땅[5] 주변의 물도랑 치기[6]와 강하천 제방 쌓기를 적극 내밀고 있음.
- 함경북도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큰물로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행방불명 되였음.
- 논밭 7,980여 정보가 침수되고 2,100여 정보가 매몰, 류실되였음.
- 560동의 공공건물과 30동의 생산건물, 근 20동의 교육기관 건물이 파괴 및 침수되였음.
- 근 50개소에 7만 9,800여m의 도로와 로반[7], 6개소에 2,215㎡의 다리, 1개의 발전소 언제[8]가 파괴되였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함경북도 큰물 피해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지에 파견된 조선 적십자회 긴급구호 일군들은 함경북도 적십자 지부와 조선(북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단 성원들과 협력하여 피해후과를 가시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적십자회에서는 비축하였던 5,000여 세대분의 긴급구호 물자(천막, 부엌세간, 이불, 물통 등 각종 생활필수품)들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보내주었음.

---

4) 가닿다 : 『북한어』 ①일정한 대상에게 몫으로 배당되다. ②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거나 올라서다.
5) 부침땅 : 『북한어』 '농사땅'의 북한어.
6) 치기 : 『북한어』 골 진 구석이나 막바지.
7) 로반 : 『북한어』 '노반'(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잘 다져 놓은 땅바닥)의 북한어.
8) 언제 : 『북한어』 『건설』 하천이나 계류 따위를 막는 구조물. '댐'으로 순화

- 긴급구호 활동에 참가한 적십자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곳에 구급처치 초소들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긴급구호 물자 분배 사업도 적극 방조하고 있음.

▌「노동당 중앙위」, '전체 당원·인민군 장병·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9.10, 중통·중방)

o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 최전방은 북부 피해 복구 전선임.

- 우리 조국(북한)의 북변 두만강 연안에서 해방 후 기상 관측 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였음.
-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 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 되였으며 이로 하여 충정의 200일 전투의 철야진군을 다그치던 함북도 북부지구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당은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200일 전투의 주요 전역들에 전개 되였던 주력 부대들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으로 급파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였음.
- 북부 피해 복구 전투는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임.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데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2016년의 경이적인 사변적 성과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의 도약대로 되는가 아니면 적대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좌절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좌우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결심과 작전을 천만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호응해 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냄.

▌전력 및 식수 공급(9.13, 중방)

o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1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강력한 조치들에 의해서 단 며칠 동안에 일시 중단됐던 전력, 먹는 물 공급이 시작됐음.

- 도로와 통신망이 다시 이어져 식료품과 피복류, 의약품, 자재와 설비 등 피해 복구용 물자들과 건설역량이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으로 쉼 없이 들어서고 있음.
- 피해 복구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시시각각으로 절감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두만강 지역이 변모될 역사의 기적이 태동한다고 격정에 넘친 목소리들을 터치며 김정은이 있어 피해 복구 전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가다듬고 있음.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 완료(9.18, 중통)

o 조선(북한)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건설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가 완성되였음.

- 국가의 중대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 피해 복구 전투가 적극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내각에서는 강력한 설계집단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 복구 전투 지휘부와 여러 설계기관의 유능한 일군들을 현지 조사조로 파견하였음.

- 현지조사를 짧은 시간에 끝낸 그들은 먼 후날(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거리와 마을들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쳤음.

-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조형화, 예술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된 문명 강국의 본보기 설계들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 건설자들에게 넘겨주라고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실천으로 화답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층살림집 설계와 소층 살림집[9] 설계, 각종 공공건물 설계가 완성되였음.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9.19, 중통)

o 박봉주 내각 총리는 철강재 증산으로 들끓고 있는 황해제철 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총리는 청년선재 직장, 가스발생로 직장, 강철 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정형과 철강재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였음.

- 협의회에서는 황철에서 이룩한 주체화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며 환강[10]을 규격별로 생산하여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 되였음.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사이 철길 복구(9.19, 중방)

o 폭우로 혹심하게 파괴되었던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사이 수십 km의 철길이 복구됐음.

- 철도성과 산하 단위의 일군들, 노동계급은 과감한 돌격전을 벌여 40개소의 파괴된 철길 복구를 단 보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음.

- 함흥 철도국의 전투원들은 수만 ㎥의 흙과 감탕을 처리하고 수백 미터 구간의 옹벽 쌓기를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음.

- 개천 철도국의 노동계급도 철길 복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등짐으로 막돌들을 날라 오고 마대전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무산 철산역-철성 청년역 사이 유실되었던 150여 미터의 노반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원상 복구해 놓았음.

---

9) 소층 살림집 : 『북한어』 2~3층 정도로 층수가 적은 살림집.
10) 환강 : 자른 면이 둥글게 된 강철 몽둥이.

- 평양 철도국, 청진 철도국의 전투원들은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도 여러 개소의 철길보수 작업을 질적으로 진행하며 날마다 혁혁한 위훈을 창조했음.

- 철도성 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 속에 파괴되었던 철길이 성과적으로 복구되어 17일 첫 열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무산역에 도착했음.

▌기계공업 부문에서 피해 복구 전투에 총력 집중(9.19, 중통)

o 기계공업 부문 로동계급이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 기계공업성 산하 건설 력량과 설비, 장비들이 피해 지역으로 급파되는 속에 락원 기계 련합기업소에서는 경험 있는 기술인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설비들을 북부 전역으로 떠나보냈음.

- 경성 애자공장에서는 며칠사이에 수천 개의 애자를 생산하여 함경북도 송배전부와 청진 철도국에 보내주어 전력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하였음.

-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는 생산조직을 전투적으로 하여 복구지역에 보내줄 전선류에 대한 생산을 완료하는 실적을 올렸음.

- 대안 중기계 련합기업소와 안주절연물 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도 북부 전역에서의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위해 증산 돌격전을 전개하고 있음.

▌수풍발전소, 북부 피해지역에 전기 송출(9.19, 중방)

o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음.

- 발전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받아 안자마자 200일 전투 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매일 전력생산 계획을 105%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

▌철길 복구 사업 성과적으로 진척(9.21, 중통)

o 원승호(철도성 처장)는 현재까지 흙사태 처리가 65%, 로반(노반)복구가 70%, 전차선 전주복구가 35%로 수행되여 여러 구간의 철길이 개통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 이번의 자연재해로 남양역-학포역, 서풍산역-무산역을 비롯한 수백 km 구간의 철길이 파괴되였음.

- 남양역-학포역 철길 복구를 맡은 단위들과 라선 철도국, 청진 철도국에서 불리한 현장 작업조건에 대처한 능률 높은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흙사태 처리와 로반(노반)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전주 세우기, 전차선 늘이기를 따라 세워 복구 구간을 늘여가고 있음.

- 서풍산역-무산역 철길 복구에 떨쳐나선 평양 철도국, 개천 철도국, 함흥 철도국에서도 륜전(윤전)기재와 건설 기계들의 만가동 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예비 부속품과 연유 보장사업을 잘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무산역-백암 청년역 철길 복구 전투장에서도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 개통의 날이 앞당겨지고 있음.

▌시멘트 선적 선박, 남포항에서 출항(9.22, 중방)

o 남포항에서 세멘트를 실은 짐배(화물선)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을 향해 출항했음.

- 상원, 순천세멘트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여 많은 세멘트를 증산하는 기적을 창조했음.
- 세멘트를 만재한 짐배(화물선)는 21일 북부 피해 복구 전선으로 떠났음.

▌국가과학원 연구사들, 과학 연구 성과로 지원(9.22, 중통)

o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받들고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이 과학 연구 성과로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사업을 힘 있게 지원하고 있음.

- 규산염 공학 연구소 연구사들은 순천세멘트 련합기업소에 나가 자체의 원료, 기술에 의한 내열 세멘트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피해 복구에 긴절히 요구되는 세멘트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 놓았음.
- '2.8 직동 청년탄광'에 나간 석탄과학 분원 선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선탄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많은 전력을 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 석탄채굴 공학연구소에서는 탄광들의 벨트콘베아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고무해 주었음.
- 조정기계 연구소, 자동화 연구소, 자연에네르기 연구소의 연구사들도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에 도움을 줌으로써 피해 복구용 설비, 자재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있음.

▌박봉주 내각 총리, 남포항 및 원산항 현지 요해(9.23, 중통)

o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전선에 필요한 자재 수송전투로 들끓고 있는 남포항과 원산항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총리는 남포항과 원산항의 항만시설들과 짐배(화물선) 등을 돌아보면서 세멘트 상선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였음.
- 총리는 철도운수 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 들어 북부 피해 복구 자재 수송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많은 양의 교과서 및 참고서, 교육기자재 긴급 수송(9.23, 중통)

o 김성일(보통교육성 국장)은 현재 수백여 종에 20만 6,000여점의 교과서, 참고서와 1만 여점의 실험기구와 시약들이 북부 피해 지역으로 긴급 수송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 이번 돌풍과 무더기 비로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크게 손상된 학교와 유치원이 무려 50여개나 됨.
- 성에서는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교과서와 참고서, 실험기구들과 시약들, 교육 기자재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전개하고 있음.
- 교육 부문 인쇄공장들과 출판사들, 교육기자재 생산단위들에서 정치사업과 함께 각종 자재 보장사업을 선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에서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 있음.
- 피해 지역들에서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학교복구와 교육사업 정상화에 떨쳐나서도록 힘 있게 밀어주고 있음.

▌평안북도·자강도·황해남도, 북부 피해 복구 계속 지원(9.25, 중통)

o 조선(북한)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열풍이 계속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수천 명의 건설력량을 복구 전투장으로 급파한데 이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
- 많은 식량과 식료품, 모포, 내의, 세수수건 등 22만 3,000여점의 생활필수품, 2만 2,000여점의 각종 공구·자재들이 피해지역에 보내여 졌음.
- 정주시에서는 수천 벌의 옷과 수백 컬레(켤레)의 신발, 1,600여점의 집기류를 비롯하여 성의 있는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음.
- 자강도에서는 강재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는 한편 기계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들이 갖가지 건구류와 수도꼭지, 가정용 전기기구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음.
- '9월 방직공장', '강계 편직공장', '강계 고려약 가공공장', '전천 성냥공장' 등 도 안의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생산이 확대되여 현재까지 도적으로 많은 량의 식량과 고기, 알을 비롯한 식료품들, 의약품들, 수십만 점의 생활필수품, 학용품들이 피해 지역에 가닿았음.
- 황해남도에서는 세멘트 수송에 필요한 20여만 개의 마대를 마련하여 긴급 수송을 조직한데 이어 근 5만m의 비닐관, 1,000여점의 건재품,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피해지역으로 보내였음.

정권 수립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 요

o 정권 수립일(9.9)을 맞아 중앙보고대회 진행(9.8, 중방·평방)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6. 9. 8.(목), 평양

* 주석단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당과 국가·군대 책임 일꾼, 우당 위원장, 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

* 참가자 : 평양시 내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무력기관·성·중앙기관 일꾼들, 기관·공장·기업소 일꾼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음.

o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가 사회를 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하겠음.

-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음.

- 주체의 강국 건설 위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위업 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림.

-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자주 시대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시대적 귀감을 창조하여온 긍지 높은 역사임.

- 김일성은 항일 혁명의 불길 속에서도 인민정권 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고 해방 후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시어 주체 37(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음.

-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가열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로 솟아오르게 되었음.

-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강국 건설 위업은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었음.

- 장군님께서는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과 준엄한 정세, 우리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시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음.

- 지금 미제와 온갖 적대 세력들이 그 무슨 인권 문제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우리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고 있지만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 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천백배로 굳건해지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음.

- 우리 인민이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책동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의 불구름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려올 수 있은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굳건히 다져주신 불패의 군력이 있었기 때문임.

- 오늘 우리 공화국은 김정은을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

- 김정은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방도들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현지지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영도하고 있음.

-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수소탄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 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음.

- 김정은은 '우리는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임.

- 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함.

o 이상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끝마치겠음.

「핵무기 연구소」 성명

▌개 요

o 5차 핵실험 공식 발표(9.9, 중통·조중TV)

▌주요내용

o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 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음.

-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 시험장의 우리 핵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왔음.

o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음.

- 시험분석 결과 폭발 위력과 핵 물질 리용곁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 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루출(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음.

-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렬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음.

o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임.

핵탄두 폭발 실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개 요

o 9월 13일 김일성 광장에서 '핵탄두 폭발 실험(9.9)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진행(9.13, 중방·중통·조중TV)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6. 9. 13.(화), 김일성 광장

* 주석단 :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당과 국가·군대 책임 일꾼들, 우당 위원장, 당·무력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

* 참가자 : 당·무력·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일꾼들·근로자들·청년학생들

o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가 13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 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 동지가 사회를 함.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낭독함.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

-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 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음.

- 이번 핵 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 하였음.

-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 리용곁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 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 루출(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음.

-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렬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음.

-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임.

-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임.

o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축하)연설을 함.

- 뜻깊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은 온 나라를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게 하고 있음.

- 다섯 번째로 성공의 뇌성을 울려 온 세계에 정치 대지진을 일으킨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천백배로 북돋아준 민족사적 쾌거임.

-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임.

-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국가 핵 무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며 가증되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을 정의의 핵으로 총 결산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함.

- 당의 영도 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체의 한 길로 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임.

o 인민무력성 부상, 육군상장 윤동현 동지가 연설함.

- 원수격멸의 서릿발 총검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함.

- 이번 핵 시험을 통하여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주체의 로케트 강국, 핵 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다시금 힘 있게 떨쳐지고 우리 혁명무력은 그가 누구든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 한다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다 해도 무자비한 핵 불벼락을 들씌울 수 있는 무적의 핵주먹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게 되었음.

-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조선의 핵 공격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금 있는 무기전투 기술기재로 적과 싸워 이긴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백두산 훈련 열풍의 불도가니 속에서 진공적 실동훈련, 진공적 두뇌훈련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 일당백 혁명 강군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겠음.

- 당면하여 우리들은 함북도 피해 복구 전선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결사로 받들어 오늘의 인민 사수전, 인민 복무전인 피해 복구 전투의 맨 앞장에서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겠음.

o 다음은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동지가 연설함.

- 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의 성명에 접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승리자의 환희에 넘쳐있음.

- 저는 온 나라 과학자들을 대표하여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선군 조선의 자주적 존엄과 백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오늘의 대경사를 안아온 우리의 미더운 핵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냄.

- 방사성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이 진행된 이번 핵 시험에서 핵탄두의 폭발 위력과 핵물질 이용곁수 등 적정 값들이 계산 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됨으로써 우리는 과학기술의 중추라고 하는 첨단 핵 기술 분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다시 한 번 힘 있게 시위하였음.

- 주체의 핵 강국의 지식인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조선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연속 창조함으로써 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함.

o 다음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 동지가 연설함.

- 저는 먼저 500만 청년전위들을 대표하여 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의 서막을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핵탄두 폭발 시험의 대성공을 안아온 우리의 핵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함.

- 주체의 핵 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존엄과 긍지는 하늘에 닿았음.

-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잡것들이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의 성공 앞에 전율하여 그 무슨 제재요 압력이요 하면서 판에 박은 소리만 줴치고 있지만 그것은 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의 맥 빠진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음.

- 우리 청년들은 원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청년강국의 위력을 총 폭발시켜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겠음.

- 조선노동당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인 우리 청년들은 김정은 시대를 조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함.

o 이상으로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 있게 과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를 끝마치겠음.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진행

▌개 요

o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진행 보도(9.26,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6. 9. 25.(일), 인민문화궁전

* 참가자 : 박봉주(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 총리), 오수용, 최부일, 로두철, 노광철과 내각 부총리들, 당·무력·정권기관·성·중앙기관·도·시·군·기관·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 전국의 모범적인 지질탐사 부문 일군들과 탐사 대원들

o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김정일의 로작 ≪지질탐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질탐사 부문 일군들이 공업의 척후병,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봉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음.

o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전달된 김정은의 서한에서는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서 지질탐사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척후전선이라고 강조하였음.

- 강제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질탐사 부문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세우고 단계별로 집행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지질탐사 사업의 현대화·정보화를 실현하며 탐사 설비들을 현대화·국산화하여야 함.

-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지하자원 보호 감독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지질탐사 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함.

- 전국의 지질탐사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질탐사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음.

o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보고에서 김정은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받아 당의 국가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전망목표와 단계별 과업, 실행대책을 세우며 현존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 전달

▌개 요

o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즈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9.27) 전달(9.30, 중통·중방·평방)

▌주요내용

o 김정은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27일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보내였음.

o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 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 육성의 중심 기지이며 주체과학 교육의 최고전당임.

- 김일성은 교육사업, 민족간부 육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해방 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종합대학부터 세워주었음.

-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대학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음.

-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창립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 육성과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였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에서 결사 관철하였음.

- 나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책임과 사명감을 자각하고 충정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지난 70년간 대학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림.

- 오늘 김일성종합대학 앞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 연구성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 있음.

- 당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 생명임.
-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대학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언제나 당 중앙과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는 신념과 충정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일류급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 관리를 개선 완비하여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육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함.
- 종합대학에서는 교육체계와 교수관리 제도, 교육행정 사업을 개선하여야 함.
- 대학에서는 토대가 있고 수준이 있는 학부, 학과들을 세계적으로 패권을 쥘 수 있는 일류급 학부, 학과로 만들며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적극 벌려 일류급 학부, 학과 대렬을 늘여나가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 사업을 힘 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선도자가 되여야 함.
- 대학에서 외국인 류학생들을 많이 받아 조선어 교육뿐 아니라 여러 전공 학과들에서 본과생 및 박사원생, 실습생 교육을 하도록 하며 박사원생들을 위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류학을 보내는 사업도 진행하여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시대적 과업임.
- 당 중앙위원회 과학 교육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과 평양시 당 위원회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 있게 밀어주며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 대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나서도록 하여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 당 위원회와 소속대학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큼.
- 김일성종합대학이 신심과 활력에 넘쳐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의 날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것임.
-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 일군, 종업원들과 학생들이 당 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학을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빛내이며 세계 일류급 대학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 세움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200일 전투 관련 우리나라 일부 언론 보도 비난(9.1, 중통)

▌주요내용

o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에 기절초풍한 박OO 패당은 지금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우리의 충정의 200일 전투를 모함하고 헐뜯는 모략선전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음.

o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적의 핵 강국, 강위력한 정치사상 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오늘의 200일 전투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적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음.

o 그러나 동족에 대한 악감과 거부감이 뼈 속까지 들어찬 박OO 패당과 극우보수언론들만은 이에 대해 악의에 찬 갖은 험담질을 다하고 있음.

o 언론은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선각자이며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임.

o 북남관계가 오늘에 와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이 극도에 이른 데는 청와대 대결광신자의 장단에 춤을 추는 보수언론들에게도 책임이 있음.

o 그러나 괴뢰 보수언론들의 그 어떤 궤변도 천만군민이 일심 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장엄한 대진군의 대하는 막을 수도 가리울 수도 없음.

o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의 매문집단이고 민족반역의 무리들인 극우보수언론들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언론사들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날에는 반드시 온 겨레의 이름으로 계산할 것임.

o 남조선의 량심적인 언론인들은 정의와 진리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고 북남관계를 헤여날 수 없는 파국상태로 몰아가는 박OO 패당과 그 앞잡이들인 극우보수언론들에 된매를 안기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임.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북한인권법' 시행 관련 우리정부 및 대통령 비난(9.1, 중통·평방)

▌주요내용

o 역적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괴뢰국회에서 《북 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한데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그를 정식 시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음.

o 남조선 인권대책협회는 박OO 역적패당의 《북 인권법》 시행놀음을 파멸의 벼랑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 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 단호히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것이 온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

o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당하고 있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의 암흑천지》가 바로 남조선임.

o 유엔에서 박OO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국제적으로 해마다 남조선의 《언론자유》 수준이 가장 한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o 특히 우리 공민들을 백주에 집단랍치하여 끌고 가 가족들과 생리별 시키고 아직까지 부당하게 감금해 놓고 있는 역적패당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부리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반인륜범죄자들임.

o 이런 인권 범죄자들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 낯짝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더 큰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낼 뿐임.

o 우리는 박OO 역적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 죄악을 천백배의 복수심을 담아 철저히 계산해놓고 있으며 최종 결산할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북 인권법》 시행 놀음은 인권유린의 왕초인 박OO 역도와 그의 시녀인 괴뢰 통일부의 추물들을 비롯한 너절한 쓰레기들의 파멸만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백서

▌개 요

o 'UFG' 연습 관련 백서 발표(9.1, 중통)

▌주요내용

o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그 무슨 《방어》와 《자유수호》의 간판을 내들고 지난 수십 년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해오고 있는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의 모험성을 까밝힘.

1. 극악무도한 대조선 정책과 군사전략의 직접적 산물

-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비렬하고 가장 횡포한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새로운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정식 적용하기로 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지난해 8월 사태를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음.
- 미제는 2015년을 《전쟁의 해》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이 전개되는 8월을 《전쟁개시의 달》로 정해놓고 합동 군사연습에 광분하였음.
-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가장 포악무도한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직접적 산물임.

2.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여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전연습

-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방식의 무모성과 적용수단의 포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규모의 실전연습임.
- 미제는 이번 전쟁연습에 악명 높은 미제 침략군 해, 공군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음.
- 옹근 하나의 대규모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전쟁 장비들과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 동원하여 북침을 단행해보려는 것, 바로 여기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의 또 하나의 모험성이 있음.

3. 극한계선을 넘어선 실전적인 핵 선제타격 연습

- 미제는 2002년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지역에서 적대 국가들에 대하여 군사적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였음.

-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도 우선순위를 제재보다 무력사용으로 정하였으며 무력사용에서는 전략적 중추를 마비시키는 선제타격 작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음.

-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이 모든 선제타격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보다 심각한 것은 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핵 선제타격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임.

- 방대한 핵전쟁 무력을 투입한 상태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불의적인 핵 선제타격을 실현해보려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의 위험성과 모험성이 있음.

4. 《방어》와 《자유수호》는 파렴치한 기만극

- 파렴치한 적들은 합동 군사연습의 침략성과 모험성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쏟아지자 철면피하게도 《정례적이고 공개적인 훈련》, 《투명성이 보장된 정상훈련》, 《년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흑백을 전도해오고 있음.

- 지금 적들이 《방어》 타령을 불어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 긴장을 해이시킨 다음 불의적인 기습타격으로 북침흉계를 이루어보자는데 있음.

- 《방어》와 《자유수호》를 그리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제창해대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고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는 저들을 《피해자》로, 《평화의 사도》로 오도하여 북침흉계를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o 적들은 이번에 우리의 초강경 대응에 질겁하여 비록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의 막을 내렸지만 북침흉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음.

o 갈수록 무모해지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새로운 핵전쟁 도발책동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끝장내려는 우리 백두산 혁명무력의 결심은 불변임.

o 정의의 핵 보검이 폭제의 핵 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부셔 버리는 것은 시간문제임.

o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북침 핵전쟁 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 대가를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게,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개 요

o 주한미군 주둔 비난 및 철수 주장 호소문 발표(9.7, 중통)

▌주요내용

o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들끓던 해방의 환희와 새 조국 건설의 열망을 피묻은 군화발로 짓밟아버리며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였음.

o 철천지 원쑤 미제에 대한 겨레의 저주와 증오가 하늘에 사무치고 반미 자주의 열기띤 함성이 온 강토에 메아리치고 있는 이 시각 나라의 통일 독립과 평화 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이 호소문을 보냄.

o 이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같은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하며 불법무법의 날강도 짓은 찾아보기 어려움.

o 과연 언제까지 남조선에서 미제 살인귀들의 무도 불측한 횡포와 살판 치는 전횡을 용납하며 치욕스러운 민족 수난의 비극을 이어가야 하겠는가.

o 수치스럽게도 70년을 넘긴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사를 끝장내야 할 력사의 시각은 왔으며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여야 함.

o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를 떠나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도, 명예도, 미래도 결코 말할 수 없음.

o 해내외 조선동포들!

- 자기 운명에 대한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가증스러운 외세와 단호히 결별하며 민족 자주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자!
-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를 총 폭발시켜 미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
- 《싸드》 배치 반대투쟁의 초불을 거세찬 반미항쟁의 홰불로 더 높이 추켜들라!
- 미제의 무분별한 북침전쟁 연습과 군사력 증강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총궐기해 나서자 !
- 미국의 식민지 멍에를 명줄처럼 여기며 미제 침략군을 하내비[11]처럼 섬기는 매국 역적들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

-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을 비호두둔하며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괴뢰역적 패당을 민족의 억센 무쇠주먹으로 짓뭉개버리자!
- 우리 민족의 건전한 사고와 의식을 마비시키는 사대매국, 외세굴종 사상과 단호히 결별하고 통일과 민족번영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가자!

o 미국은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위한 그 어떤 명분이나 구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o 미제 침략군 무리들이 제2의 조선 전쟁에서 군패[12]마저 없는 유골이 되여 수세기를 방황하지 않으려거든 오늘의 중대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임.

o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조선민족의 것임.

11) 하내비 : 『북한어』 ①할아비 ②할아버지
12) 군패 : 『북한어』『군사』 '인식표'의 북한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호소문

▌개 요

o 남·북·해외 청년들의 "청년 통일 대회합" 제안(9.7, 중통)

▌주요내용

o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백두 령장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화답하여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총 폭발시켜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불타는 일념으로부터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냄.

o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o 《통일 청년 강국의 광활한 래일을 향하여 조선청년들 앞으로!》, 이 투쟁 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자!

1.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국통일의 향도성으로, 조선 청년 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 더욱 높이 받들어 모시자!

2.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청춘의 뜻과 마음을 합쳐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3. 우리 청년들이 조국 통일 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북남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앞장서 열자!

4. 민족의 머리우에 핵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 파쑈 민주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

5. 해외동포 청년들이 존엄 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기여하자!

o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o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맞게 조국 통일 운동을 더욱 참신하고 활력 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청년 통일대회합을 가지자는 것을 정중히 제안함.

o 민족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인 전체 조선청년들이 떨쳐나선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으며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도 확정적임.

o 통일 청년 강국의 광활한 래일을 향하여 조선청년들 앞으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북·해외 본부」 공동 결의문

▌개 요

o 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반미 투쟁' 선동(9.8,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남측 본부, 해외본부는 민족 분렬의 원흉이고 통일의 최대 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범민련은 삼천리 조국 강토에서 하루빨리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

2. 범민련은 내외 반통일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갈 것임.

3. 범민련은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힘 있게 추동해 나갈 것임.

o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 해결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단합하면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고 해내외 각 계 각 층과의 폭넓은 련대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임.

o 력사적인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불변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개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갈 것임.

o 범민련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함.

「민화협」 경고장

▌개 요

o 우리 대통령의 대북 발언 관련 원색 비난(9.10, 중통)

▌주요내용

o 민족 화해 협의회는 격노한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징벌의지를 그대로 담아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해 나서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최후 발악하는 극악한 동족대결 광신자,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인 박OO 역도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함.

1. 박OO 역도는 그 무슨 《균렬 조짐》이니, 《급변사태》니 하며 아무리 떠들어대야 우리의 체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잠꼬대 같은 수작질을 걷어치워야 함.

2. 박OO 역도는 병진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질풍노도 치며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을 똑바로 보고 《고립》이니, 《자멸》이니 하는 부질없는 앙탈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함.

3. 박OO 역도는 《체제통일》 야망이야말로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변화유도》니, 《주민의 삶》이니 뭐니 하며 경망스럽게 놀아대지 말아야 함.

o 우리는 박OO 역도가 우리에 대해 줴친 악담들과 저지른 죄악들을 죄다 기록해 놓고 있으며 조국 통일 대전 승리의 그날 그에 대해 가장 철저히, 가장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임.

o 이것은 결코 엄포나 위협이 아님.

o 박OO 역도는 무모한 대결악담을 마구 줴쳐댄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머지않아 똑똑히 보게 될 것임.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대북 발언 관련 원색 비난(9.12, 중통)

o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북 발언 비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총회에서의 '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 발언 관련 비난 및 위협 (9.24~30, 중통·중방·평방)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12, 중통)

*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OO 패당이 《북 급변사태》 나발을 불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얼마 전 박OO년은 해외행각을 나서면서 수하졸개들에게 《북 내부의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느니, 《급변사태가 임의의 시각에 도래할 수 있다.》느니, 《엄중한 현실에 대비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지껄여댐.

o 박OO 역적패당이 운운하는 이러한 《북 급변사태설》은 초보적인 상식도, 분별력도 없는 정치문맹자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음.

o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심단결로 끄떡없고 무진 막강한 군력에 의해 그 불패성이 담보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임.

-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가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우리 공화국의 이 정치사상적 위력은 천만대적도 일격에 짓뭉개 버릴 수 있는 무진 막강한 자위적 핵 억제력에 의해 더욱 굳건히 담보되고 있음.

o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생겨난 쓰레기와 오물들을 보고 《급변사태 도래》니, 《붕괴 조짐》이니 하고 떠드는 괴뢰패당의 추태야말로 돌부처도 웃길 일임.

- 괴뢰패당이 그 무슨 《북 급변사태》의 증거로 내세우는 월남 도주자들로 말하면 국가비밀 루설(누설), 국가자금 횡령절취, 미성년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이 두려워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과 부모형제들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달아난 추악한 범죄자들임.

- 우리 공화국은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인간쓰레기들이 없어짐으로써 더 깨끗해지고 강해지게 되였으며 반대로 인간 오물들이 모여든

남조선은 더욱더 구역질나는 인간추물들의 서식장으로 되게 되였음.

o 오늘 체제 붕괴, 급변사태에 직면한 것은 박OO 패당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으로 인민의 원한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남조선임.

o 박OO 역적패당의 《북 급변사태》 나발은 풍랑을 만난 놈이 깨여진 쪽배 우에서 하늘땅이 흔들린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o 박OO와 같이 눈을 펀히(편히) 뜨고도 동족의 경천동지할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 뜬 소경, 하늘을 어째보겠다고 지랄 발광하는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 감투를 쓰고 있으니 남조선에 망조가 들 수밖에 없음.

o 박OO 패당은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똑바로 알고 개나발을 함부로 짖어대지 말아야 함.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24, 중통·중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이 남조선의 친미보수 세력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날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함.

o 최근 유엔 사무총장 반OO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미국과 박OO 패당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재압살 소동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청해 나서고 있음.

- 특히 반OO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전적으로 추종하면서 유엔을 그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정치무대로 악용해온 대결광신자임.

o 지금 반OO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기 위해 앞장서 날뛰고 있는 불순한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님.

o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반OO은 남조선에 돌아가 다음해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공개하였음.

o 하지만 그 어떤 지지기반도 없고 정치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남조선 현실도 잘 모르는 그로서는 미국 상전과 박OO에게 더 바싹 가붙는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여 있음.

o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소견과 가소로운 망동이 가져다줄 것은 그가 원하는 《대통령》 감투가 아니라 겨레와 민족의 엄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

o 만약 그가 추악한 정략적 타산만을 앞세워 박OO 친미 보수패당과 배꼽을 맞추고 우리에 대한 제재놀음에 계속 가담하며 못되게 놀아댄다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29, 중통·중방·평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괴뢰역적 패당이 유엔 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시비하는 주제 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함.

o 지난 22일 괴뢰 외교부 장관 윤OO는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이 상습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유엔 성원국 자격이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줴쳐댔음.

o 괴뢰패당이 《유엔결의 위반》이니, 《유엔을 조롱》한다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들고 있지만 실지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롱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박OO 역적 패당을 비롯한 그 추종 세력들임.

o 우리의 핵 무력 강화는 가증되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임.

o 반공화국 대결 정책의 총파산과 반인민적 악정으로 인한 대내통치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박OO 패당은 지금 리성을 잃고 발악하고 있음.

o 그러나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광해도 동방의 핵 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음.

o 박OO 패당이 대세의 흐름을 가려보지 못하고 반공화국 대결에 미쳐 날뛸수록 우리의 핵 무력 강화조치는 다계단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역적패당의 완전 파멸만을 촉진하게 될 것임.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 정부의 '北 5차 핵실험 대응'과 대북 발언 관련 비난 및 위협(9.13, 중통·평양·중방)

▌주요내용

o 최근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감행되는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각일각 최악의 폭발 직전에로 치닫고 있음.

o 그 맨 앞장에서 미친개 무리마냥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이 박OO 역적패당임.

- 우리의 핵 뢰성에 혼비백산하여 해외구걸 행각도 채 마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청와대로 돌아온 박OO 역도는 매일같이 역겨운 모의판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걸고드는가 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니, 《확고한 보복응징 태세》니 하는 히스테리적 발작으로 졸개들을 무모한 반공화국 도발에 내몰고 있음.

o 우리가 지금껏 국가 핵 무력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다계단으로 련속 취해온 것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정당당한 선택 이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두고 마치 마른하늘에 생벼락이나 맞은 듯이 길길이 날뛰며 천하 무도한 도발망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도불측한 날강도 짓이 아닐 수 없음.

o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부정하고 끝까지 말살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혁명의 수뇌부까지 무엄하게 걸고드는 불구대천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치를 떨고 있음.

o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으며 말로써는 수습하기 어려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음.

o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이 시각 불의와 추호도 타협할 줄 모르는 전체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립장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음.

o 우리 공화국이 쥘 것은 다 쥐고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까지 통과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임.

o 박OO 패당과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어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눈앞의 상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을 등대고 미련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함.

- 미국은 이미 기울어진 기둥이며 일본은 침몰하는 섬나라임.

o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그 무슨 《체제 붕괴》와 《평양 석권》을 노린 《참수작전》에 진입하려는 사소한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만장약[13]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에 대한 즉시적인 발사명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o 아무리 박OO가 미국을 하내비처럼 떠받든다고 해도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핵우산》은 이미 우리의 핵 보검 앞에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여 있음.

-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압박도 우리의 당당한 핵 보유국 지위를 허물 수 없으며 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초래할 것이란 최종적 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 세례뿐임.

o 우리의 국가 핵 무력은 나라의 최고 존엄과 리익을 보위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임.

13) 만장약 : 『북한어』 ①폭약을 가득 재우는 것 혹은 그 폭약 ② (어떤 사상이) 꽉 들어차는 것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계획 관련 비난 및 反정부 투쟁 선동(9.15,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최근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혼비백산한 박OO 패당이 그것을 구실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 《싸드》의 남조선 배비를 강행하려고 발광하고 있음.

- 박OO 역도는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극히 엄중한 상황》이니, 《북 정권을 끝장낼 각오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때를 만난 듯이 《안보 위기》와 반공화국 적대감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한편 《강력 대응태세》를 떠들면서 이 기회에 남조선 각 계층의 《싸드》 배비 반대기운을 눌러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음.

o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급속한 핵 무력 고도화에 기절초풍한 박OO년의 부질없는 객기에 불과함.

o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파멸의 종착점에 다달은 미국의 운명과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박OO 패당의 신세에서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

o 문제는 박OO와 그 패당이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싸드》라는 괴물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이 무서운 핵 참화를 들쓰게 된다는데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OO년은 《북핵 위협》이라는 기만적인 술수로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기어코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임.

o 지금 박OO 역도년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한편으로는 《평양 초토화》니, 《전쟁 지휘부 제거》니 하고 악청을 돋구어 떠들어대면서 분별을 잃고 날뛰고 있음.

o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싸드》의 배비는 미국의 남조선 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는 현대판 《을사오적》 행위이고 남조선 땅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처참한 핵페허(폐허)지대로 만드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며 집안에 승냥이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려는 어리석고 비렬하기 그지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임.

o 온 겨레는 이 땅에 무서운 핵 참화를 몰아오는 박OO 패당의 《싸드》 배비 강행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함.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 대통령의 北 5차 핵실험 관련 발언(안보 위기 상황, 국가 비상체제 언급 등)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9.19, 중방·중통)

▌주요내용

o 최근 박OO 패당이 민족의 대경사이며 자랑인 북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대대적인 《안보위기》론을 고의적으로 류포시키면서 보수 재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해보려고 최후 발악해 나서고 있음.

o 박OO 보수패당의 이러한 무분별한 망동은 《북핵 위협》을 구실로 더욱 살벌한 《안보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극도에 달한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나 보수 재집권의 출로를 열어보려는데 그 악랄한 속심이 있음.

o 하지만 20세기도 아닌 오늘의 대명천지에 이런 구시대적이고 오만무례한 기도가 순순히 먹혀들리 만무함.

o 결국 박OO 패당이 《비상사태》니, 《위기》니 하는 것은 친미보수 세력들 자신에게 닥쳐온 피할 수 없는 파멸이고 준엄한 심판이며 비참한 종말일 뿐임.

o 우리 민중은 박OO를 비롯한 《새누리당》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여 오늘과 같은 재난과 불행의 세월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친미보수패당을 완전히 매장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느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서 있음.

o 이남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은 박OO 패당의 위험천만한 재집권 흉계를 옳게 꿰뚫어보고 대중적인 반(反) 박OO, 반미 투쟁의 불길로써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하며 이러한 정의로운 실천에서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성취하여야 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개 요

o 韓美의 5차 핵실험 대응(수뇌부 제거 언급 및 美 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 등) 관련 비난(9.22,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최근 미제의 사촉 밑에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쳐대고 있음.

- 한편 9월 21일 괴뢰 국회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라는데 나타난 괴뢰 국방부 장관 한OO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북이 미국을 공격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궤멸될 것》이라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적 망발을 꺼리낌 없이 줴쳐댔음.

- 미제가 한OO의 망발이 나온 그날에 괌도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완전무장한 핵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남조선 군사분계선지역 상공으로 왕복 비행시키면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려놓고 그중 1대를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전개시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

o 미제는 사상처음으로 되는 핵 전략 폭격기의 남조선 지상 전개가 《북 지도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도수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공언해대고 있음.

o 이러한 군사적 도발 행위들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수습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

o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위임에 따라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인 군사적 대응 립장을 천명함.

- 날강도 미제와 박OO 역적패당은 이미 우리 혁명무력이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을 실행하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결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함.

-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대형 도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 숨 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징벌의지임.

- 이 땅은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대미 전승신화가 영원한 바통으로 이어지고 오늘은 동방의 핵 강국, 전략 로케트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백두산 대국임.

- 만약 미제가 《B-1B》 따위를 계속 우리 상공에 끌어들이며 군사적 도발의 위험 도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임.

o 박OO 패당이 떠드는《북 수뇌부 제거》망동은 청와대의 완전궤멸과 서울 재더미(잿더미)만을 초래케 할 것이며 미국의 핵전쟁 살인 장비 투입은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있는 미제 침략군기지들을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는 핵 악몽 속에 몰아넣게 될 것임.

o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격노한 우리 군대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방도는 오직 하나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데 있다고 한 우리의 경고를 심중히 대하여야 할 것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北 수해 관련 우리 정부 태도 및 언론 보도 내용 비난(9.22,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조국의 북변 두만강 연안의 여러 시, 군들에서 해방 후 기상 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14]가 쏟아져 내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o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박OO 패당은 우리의 북부지역에 들이닥친 혹심한 재난을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어대는 망동을 부리여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하고 있음.

- 역적패당은 때를 만난 듯이 괴뢰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우리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왜곡), 날조하면서 《고된 로동 강요》니, 《복구비용 부담》이니, 《불만이 커가는 분위기》니 뭐니 하는 온갖 개나발을 다 불어대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북 주민들의 삶》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망발을 줴치며 반공화국 모략내용이 담긴 삐라를 우리 측 지역에 날려 보내게 하는 엄중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결에 환장 할대로 환장하여 재난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서슴없이 칼질을 해대는 박OO 패당의 비렬하고 무례무도한 망동을 천인공노할 반인도적, 반인륜적 만행으로 락인하면서 우리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의지를 담아 준렬히 단죄 규탄함.

- 큰물 피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해지역을 도와주는 것이 초보적인 인륜도덕이고 보편적인 관례임.

- 그런데 박OO 패당은 동족이 당한 가슴 아픈 불행에 대해 위로는 못할망정 오히려 깨고소해하며 온갖 터무니없는 모략 나발을 다 불어대고 있음.

- 참을 수 없는 것은 역적패당이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충의와 결사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감히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임.

14) 무더기비 : 『북한어』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비. 저기압, 태풍 따위가 지나갈 때에 200mm 이상 내리는 비이다.

o 박OO 패당은 대결에 환장하여 우리의 북부 피해 복구 전투를 악랄하게 헐뜯어대는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를 감행한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몸서리치게 통감하게 될 것임.

o 이 기회에 다 죽어가는 산송장인 박OO 년의 비위를 맞추며 반공화국 모략 나발을 마구 불어대는 괴뢰 언론사들과 매문가들,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에게도 경종을 울림.

o 우리 천만군민과 온 겨레는 동족이 당한 재난까지 대결모략에 악용하며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는 천하 패륜의 무리인 박OO 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

「농근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백남기씨 사망 관련 반정부 투쟁 선동(9.29, 중통·중방·평방)

▌주요내용

o 지금 온 남녘땅은 보수패당의 파쇼적 폭거에 의하여 지난 25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소식에 커다란 울분과 분노로 끓고 있음.

o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중앙위원회는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바라는 무고한 농민에게 생죽음을 강요한 박OO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만행을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살인범죄 행위로 락인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체 농업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박OO년으로 말하면 온 남녘땅을 세계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죄악으로 하여 이미 민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은지 오랜 살인범죄의 왕초임.

o 오죽하면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이 역도 년을 《야수》, 《망녕든 로파》, 《온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마귀년》으로 저주하다 못해 핵 화염으로 온 민족을 멸살시킬 악귀로, 핵전쟁 미치광이로 규탄하며 치를 떨겠는가.

o 지금 남조선 각 계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매우 통탄스러워하면서 박OO년을 살인악마라고 절규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준렬히 단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함.

o 이번 사건을 두고 온 겨레는 민족의 화근인 천하의 인간백정 박OO년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남조선에서 제2, 제3의 백남기 죽음이 련이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절히 느끼고 있음.

o 남조선의 농민들과 각 계층은 무고한 농민을 억울한 죽음에로 몰아넣은 박OO년을 인민의 심판장에 끌어내여 만고죄악을 철저히 계산해야 함.

o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농업 근로자들은 정의와 민주를 되찾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떠선 남녘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언제나 적극지지 성원할 것임.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주한미군 철수 주장 △美 대통령의 '北 탄도 미사일'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 발언 비난(9.7~8, 중통·중방)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美 대통령의 對北 핵실험 규탄 성명(추가 제재 등 중대 조처) 관련 위협(9.11,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담화(9.7, 중통·중방)

o 9월 8일은 미국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71년이 되는 날임.

- 미군의 남조선 강점 70여 년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대결, 긴장격화가 지속되여 온 력사이며 오늘날 남조선 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암적 존재로 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타고 앉은 미국은 아시아와 세계 제패의 침략적 야망을 추구하면서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음.

o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여 년 기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북침전쟁 연습을 벌리면서 조선 반도와 지역 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왔음.

- 조선반도 정세가 항시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과 남조선 강점 미군을 주력으로 하여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때문임.

- 남조선 강점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간판 밑에 지역의 다른 분쟁들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기동군》으로 변화되여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명백해졌으며 최근에는 주변나라들까지 작전반경 안에 포함하는 《싸드》를 남조선 강점 미군에 끌어들이는 데로 나가고 있음.

- 현실은 남조선 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

o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 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을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 있음.

- 미국은 핵 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함.

▌「외무성」 대변인 담화(9.8, 중통·중방)

o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질겁한 오바마 행정부가 구태의연한 대조선 정책을 합리화하고 제재압박 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

- 최근 동아시아 수뇌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라오스를 행각 중인 오바마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계속되는 탄도 로케트 발사들은 《도발적》이라느니, 《도발》은 더욱 큰 압력을 초래할 것이며 대조선 제재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느니 하고 악담하였음.

- 오바마의 망발은 미국 내외에서 높아가고 있는 저들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함.

o 우리의 련이은 핵 무력 강화조치는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 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임.

-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15]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음.

o 미국이 적대 세력들을 규합하여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 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대화와 협상에 대해 떠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임.

-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며 미국이 우리의 섬멸적 타격을 피할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것임.

o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위협하려드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 정책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 공격 능력을 배가로 강화하기 위한 사변적인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취해나갈 것임.

15) 탁 : 『북한어』 식탁, 원탁, 탁자, 탁구대 등을 두루 이르는 말.

▌「외무성」 대변인 담화(9.11, 중통·중방)

o 9일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국제적인 행동규범에 대한 《무시》로 걸고들면서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o 핵탄두 폭발 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o 오바마의 이번 《성명》 발표놀음에는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책임을 회피하고 세계 면전에서 납작해진 저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려는 속심이 깔려있음.

-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핵탄두 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밀어준 장본인이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항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공갈은 우리를 여기까지 밀고 온 원동력이 되였음.

o 오바마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려드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워 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음.

-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거덜이 나고 이사짐을 쌀 날이 가까워 오는 오늘에 와서까지 무의미한 제재타령을 그냥 외워대며 동분서주하는 오바마 패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음.

o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9.6)' 전면 배격 및 '핵 무력 강화 계속 확대' 강조(9.7, 중통·중방)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美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정부군 기지 오폭' 관련 비난 △美 국무장관 발언(도발, 무모한 행동 등) 관련 위협(9.17~23, 중통·중방·평방)

o 「외무성」 대변인, 최근 주요 국제회의(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77개 집단 외무상 회의) 참가 국가들이 '유엔의 對北 제재(북핵 문제 등) 배격 및 철회 요구 등 北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 표시' 주장(9.28,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7, 중통·중방)

*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우리의 정상적인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을 문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6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또다시 걸고드는 공보문을 조작해내였음.

-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 자주권과 자위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함.

o 우리 군대의 이번 탄도 로케트 발사 훈련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수역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음.

-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조선반도에 전략 자산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쟁 수단들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문제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인 미국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계속 걸고들수록 국제사회 앞에 아무 쓸모없는 불공정한 실체로서의 자기 정체만 더욱 드러내게 될 것임.

o 우리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으로 서막을 열어제낀 력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핵 무력 강화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20, 중통·중방·평방)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군 전투기들이 수리아(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하여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보도들에 의하면 17일 미군 전투기들이 수리아에서 정부군의 기지를 공습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음.

o 미국의 이번 공습은 《실수》가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의도적인 침략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규탄함.

- 이번 사건을 통하여 수리아에서 미국이 벌리고 있는 《반 테로전》이라는 것이 자주적인 수리아 정부를 전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음.

- 미국은 합법적인 수리아 정부의 승인 없이 남의 나라 땅에 기여들어 줄폭탄을 퍼부어대면서 도시와 마을들을 파괴하고 피난민 위기를 산생시킨 장본인임.

o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태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 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자면 자기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높이 들고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은 바로 미국의 강권과 핵 위협공갈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임.

o 우리 공화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로를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아랍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21, 중통)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걸고드는 놀음을 벌린 것과 관련하여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18일 미 국무장관 케리는 뉴욕에서 일본 외상, 남조선 괴뢰 외교부 장관과 3자 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핵 무력 강화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무모한 행동》이니 하고 비방하면서 《비핵화 대화》 타령을 또 다시 늘어놓았음.

o 우리의 핵 무력은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임.

o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커다란 혜택이 차례질 것》이라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조선반도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임.

-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적 적대행위와 핵 공갈에 매여달림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근간을 제 손으로 깨버렸으며 더는 그 무슨 《공약준수》요 뭐요 할 법률적 기초도, 도덕적 명분도 완전히 잃어버렸음.

o 미국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데로부터 《인권 문제》까지 거들며 우리의 《제도 전복》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임.

- 미국과 그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발악적인 제재 압박 소동에 매여 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보복 의지만 백배해질 뿐임.

o 우리는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계속 취해나갈 것이며 미국이 잘못 내린 판단과 분별없이 저지른 망동질을 놓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28, 중통·중방)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주요 국제 회의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된 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지난 17일과 18일 진행된 제17차 쁄럭 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는 운동성원국들의 공동의 립장을 반영한 최종 문건과 마르가리따 선언이 채택되였음.

- 수뇌자회의 최종문건에서는 쁄럭 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이나 무력사용 및 위협을 유엔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침략 행위로 반대 규탄하였음.

- 문건에서는 쁄럭 불가담운동 성원국들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이 타당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성, 정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가 표시되고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과 리용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반대 배격하였음.

- 이와 함께 인권문제 취급에서의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을 초래하는 특별보고자 제도를 반대 배격하는 립장도 명백히 밝혔음.

o 또한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였음.

o 이번 쁄럭 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최종문건 채택과 77개 집단상회의 선언 발표는 유엔 성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 수십 개 나라들이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전대미문의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을 반대 배격한 것으로 됨.

- 이것은 렬강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국제적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정정당당한 립장 표시로 되며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됨.

o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과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쁠럭 불가담 나라들,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

리용호,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

▌개 요

o 리용호(외무상),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9.15~16) 연설을 통해 '北 5차 핵실험' 정당성 강변 및 UN 안보리의 "불공정" 주장(9.16, 중통·중방)

▌주요내용

o 리용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제17차 쁠럭 불가담[16] 국가 수뇌자 회의에 앞서 15일과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쁠럭 불가담운동 상급회의에서 연설하였음.

o 그는 현 시기 위력한 반전 평화 애호 력량으로서의 쁠럭 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침략적인 군사 쁠럭을 유지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운동의 립장을 최종문건에 명백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랭전이 끝난 지도 4분의 1세기가 흘렀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그때의 군사 쁠럭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군사 쁠럭이 맹아단계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몇 차례씩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미국-남조선 합동 군사연습들은 한마디로 운동 성원국에 대한 제국주의 렬강의 전대미문의 군사적 위협, 핵 위협 행위임.

- 조선반도 정세가 계속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미국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에 원인이 있음.

o 그는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공정성과 정의를 떠나 타당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운동성원국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데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음.

-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미국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수차에 걸치는 제소는 외면하는 반면에 우리의 핵 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를 걸고 그것을 금지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한데 이어 제재를 가하였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게 되었음.

6) 쁠럭 불가담 운동 : 『북한어』 비동맹 운동(非同盟運動, Non-Aligned Movement).

- 미국이 수십 년간에 걸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억제력이며 상대가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 조건에서 오직 핵무기만이 억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임.

-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우리의 핵 무력은 쁄럭 불가담운동의 반핵 립장과 핵 전파 방지 립장에 모순되지 않음. 우리가 핵 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임.

-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에도 국가의 최고 리익이 위협당하는 경우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체약국의 권리가 부여되여 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그러한 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음.

- 공화국 정부는 핵 억제력으로 미국의 핵 위협 책동을 저지시키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 우리보다 앞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의 모든 상임 리사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도합 2,000여 차례의 핵 시험을 진행하고 수많은 탄도 로케트들을 발사하였지만 안보 리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금지시킨 적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유독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핵 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는 처분을 내렸음.

- 공화국 정부가 이 《결의》의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유엔 사무국에 공식 제기하였으나 4개월이 되어 오도록 답변을 못하고 있음.

- 제16차 쁄럭 불가담국가 수뇌자 회의 최종문건에는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 헌장 제7장을 발동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운동의 원칙적립장이 표명되여 있음.

- 쁄럭 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은 운동의 립장과 어긋나는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결의》의 불공정성과 부당성, 비도덕성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임.

-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기준》을 운동 성원국들에 강요하는 데서도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를 도용하고 있음.

- 우리는 아직도 10여 년 전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이라크에 대량 살육 무기가 있다는 미국의 거짓말을 들어주는 마당으로 도용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

- 그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예멘, 수단 등 내전과 폭력에 휩싸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례외 없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의 간섭과 강권의 그림자가 비껴있음.

- 쁄럭 불가담운동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각개격파당하지 말아야 함.

-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보 리사회 안의 운동 성원국들이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안보 리사회에 속한 쁠럭 불가담운동 성원국들만 공동행동을 이룩하면 운동은 모든 절차상 문제들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임.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러한 견지에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안에서 운동 소그루빠[17]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o 끝으로 그는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쁠럭 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함.

17) 그루빠 :『북한어』그룹(Group)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

▌개 요

o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9.17)에서 '北 5차 핵실험 당위성' 강변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장(9.19, 중통)

▌주요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17일 베네수엘라에서 개막된 제17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연설하였음.

o 김영남 동지는 쁠럭 불가담운동의 리념은 지난 55년간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투쟁을 힘 있게 추동하고 세계의 변혁과정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음.

- 오늘 쁠럭 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 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대다수 유엔 성원국들을 망라하고 있고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쁠럭 불가담운동이 국제무대에서 응당한 지위와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안 되는 렬강들의 전횡과 횡포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음.

- 오늘 조선반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략 자산들과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년중 그칠 새 없이 벌리고 있는 미국의 불장난 소동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먹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음.

- 우리 공화국은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 버림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이고 진상임.

-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미국은 핵 강국, 군사대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힘을 똑바로 보고 자중, 자숙하여야 하며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룰 수 없는 허황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함.

o 오늘 우리 인민은 김정은의 령도 밑에 자주, 선군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밝힌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우리 인민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음.

- 나는 이 기회에 운동의 지위, 역할 강화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견해와 립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함.
- 첫째로, 쁠럭 불가담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인류 공동의 념원이며 지향인 세계 자주화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함.
- 쁠럭 불가담 나라들은 《민주주의》와 《반 테로전》을 방패로 내들고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하며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함.
- 둘째로, 쁠럭 불가담 운동은 위력한 반전 평화 애호 력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함.
- 쁠럭 불가담 나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적인 군사 쁠럭들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함.
- 특히 개별적인 운동 성원국들에 집단적으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운동적인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성원국들 사이의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함.
- 셋째로, 쁠럭 불가담 나라들은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의견 상이를 뒤로 미루고 단결과 협조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
- 쁠럭 불가담 운동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벗기고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며[18]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함.
- 쁠럭 불가담 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운동 공동의 리념 밑에 단결하고 남남협조의 기치 밑에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함.
- 넷째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운동의 조직력과 행동능력을 강화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의장국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분야별 상급회의들과 뉴욕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하여 그 행동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주함.
- 그리고 운동 안에 조직되여 있는 인권에 관한 사업 그루빠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안의 운동 소그루빠를 비롯한 부문별 사업 그루빠들의 운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운동의 행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고 생각함.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건설을 위한 쁠럭 불가담 운동의 리념에 충실할 것이며 세계 자주화와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

18) 마사지다 : 『북한어』 ①부서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다.
②낡은 사상의식, 생활양식, 낡은 기준량 등 기존 관례나 격식이 허물어지다.

리용호,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연설

▌개 요

o 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 제71차 회의(9.23)에서 '핵 무력 강화' 주장 연설(9.24, 중통)

▌주요내용

o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서 2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하였음.

o 그는 《지속 개발 목표》를 주제로 하는 본 회의가 모든 나라들의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는데서 의의 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이며 지속개발도 무엇보다 평화와 안전을 대전제로 하고 있음.
-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테로의 광풍이 몰아치고 세계적인 열점지역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조선 반도는 핵전쟁의 발발 위험까지 안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였음.
- 조선반도 정세가 자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계속 벌려놓고 있는데 근원이 있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필요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왔음.
-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중단 없이 계속 벌어지고 그 성격은 더욱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
- 유엔 헌장에도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결할 데 대하여 규제되여 있음.
- 그러나 지금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조선 반도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을 떠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감싸주는 노릇을 하고 있음.
- 우리가 핵 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최근에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 결의》 제2270호에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케트 시험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된다고 걸고 들었음.

- 그런데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안전 보장 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케트 시험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그러한 근거와 권한이 있다면 왜 이러한 시험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임.

- 이에 대해 우리가 유엔 사무국에 공식 제기하였지만 4개월이 되여오도록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결의 아닌 《결의》를 가지고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에게 그 리행을 강요할 도덕적 자격이 없으며 유엔성원국들은 이런 불공정한 부정의의 《결의》를 리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음.

- 핵 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로선임.

-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핵 억제력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음.

o 그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음.

-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함.

- 유엔이 정의를 저버린다면 그 누구도 유엔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될 것임.

- 미국은 핵 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이 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말살해보려고 시도할 것임.

-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제도를 앗아낼 수 없음.

o 그는 끝으로 우리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였음.

「국제문제 연구소」 비망록

▌개 요

o 국제문제 연구소, '인류 역사에 피로 얼룩진 만고의 핵 범인 미국의 죄악을 고발한다'며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모든 것을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9.27, 중통)

▌주요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제문제 연구소는 인류 력사에 피로 얼룩진 만고의 핵 범인 미국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함.

1. 인류말살의 흉계 -《맨하탄 계획》과 핵 참화의 진상

-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맨하탄 계획》과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들씌운 핵 참화는 인류말살을 전제로 고안되고 무고한 생령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하여 실현된 극악한 반인륜 범죄행위임.

- 가증스러운 핵 악마 미국에 의해 감행된 이 참혹한 대살륙 작전은 치밀한 사전계획과 반복훈련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서 추호도 변명할 수 없는 전쟁범죄이며 인류말살의 서막을 열어제낀 극악한 반인륜 범죄였음.

- 이 무참한 민간인 대학살이 미국에 왜 필요하였는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진의도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가 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어 진보세력을 위압하고 세계를 꿇어앉히려는데 있었음.

- 오늘도 핵 악마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음. 2016년 5월말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은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의 군국화 광증을 더욱 고취해주는 동시에 핵폭탄을 리용한 70여 년 전의 생체실험이 오늘날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현지에서 검증하려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었음.

2. 제2, 제3의 핵 참화를 몰아오는 악마의 횡포 – 핵 독점, 핵 우세, 핵 공갈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핵과학자들 속에서는 핵무기가 일단 출현한 이상 그 관련기술을 공유하여 특정한 나라의 독점과 전횡으로 인류의 핵 참화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왔음.

-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핵 에네르기의 국제 관리》라는 미명 하에 1946년 6월 유엔 원자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든 나라들의 핵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발기하고 1946년 9월 모든 핵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맥마혼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핵무기의 독점을 지탱하기 위해 갖은 모략과 전횡을 다 부리면서 발광하였음.

- 가증스러운 미국의 횡포는 지리, 전략적 요충지로 되는 지역 및 나라들마다에 핵무기들을 배비함으로써 행성을 악마의 핵사슬로 휘감아 움켜쥔 것임.

- 핵 악마 미국의 또 하나의 횡포는 핵 몽둥이로 주권국가들을 위협 공갈하고 해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임.

- 핵전쟁 미치광이 트루맨은 저들의 핵 독점이 무너지게 되자 《힘의 절대적 우위에 의한 세계지배》교리로 쏘련과 주변의 진보적인 나라들까지 공격대상의 범위에 포괄시키는 《주변 선 억제 전략》을 들고 나왔음.

- 1950년 6월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은 바로 이러한 전략이 실천에 적용된 첫 전쟁이였음.

- 최근 미국의 핵 미치광이들은 전략 핵 무력의 3대 요소인 대륙 간 탄도미싸일, 핵잠수함, 핵 전략 폭격기들을 부단히 갱신하는 한편 정밀유도 전술 핵폭탄 《B61-12》를 비롯하여 5가지 신형 핵탄두 개발, 4세대 핵무기의 개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조종 극초음속 폭격기 《X-51A》, 《X-43A》의 개발을 다그치면서 새로운 핵전쟁 광증을 일으키고 있음.

3.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파렴치한 핵 악마의 위선

- 이 땅 우에 핵무기가 출현한 첫날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념원하여 왔음. 그러나 미국의 력대 위정자들은 《핵의 평화적 리용》, 《핵 군축》, 《핵무기 전파 방지》와 같은 그럴듯한 간판들을 내걸고 그 뒤에서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온갖 못된 짓을 다하였음.

- 미국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핵무기 전파방지》는 저들의 추악한 핵무기 전파 범죄행위를 감싸는 너울에 지나지 않음.

- 현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구상을 제창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극도의 우롱임.

-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핵 악마의 위선행위는 궁극적으로 가일층의 핵위협 공갈과 핵전쟁 기도를 감싸기 위한 허울이라는데 그 범죄적 본질이 있으며 그 정체는 대조선 핵 정책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상기의 사실과 자료들은 미국이야말로 악마의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공동의 원쑤,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음.

o 우리의 핵 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력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철퇴이며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이 가증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 철퇴는 천백배로 억세여질 것임.

- 자주와 정의의 핵 강국인 주체 조선이 있는 한 전쟁이 없는 행성에서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살려는 인류의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제1비서)

08.31 팔레스티나 대통령의 '광복절' 축전에 대한 답전(9.3, 중통)

(미상) 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9.1, 중통·중방)

(미상) 전귀복(女, 자강도 용림군)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9.1, 중통·중방)

(미상)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9.6, 중통·중방·평방)

(미상)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 지도(9.13, 중통·중방)

(미상)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 지도(9.15, 중통·중방)

09.11 시리아 대통령 51회 생일 관련 축전(9.11, 중통·중방)

09.19 최동륜·황신률(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에게 80살 '생일상' 전달(9.19, 중통)

(미상) 강원도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9.18, 중통·중방)

(미상)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 지도(9.20, 중통·중방)

09.20 故 최원창(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 영전에 화환 전달(9.20, 중통)

(미상)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 촬영(9.22, 중통·중방)

(미상)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 지도(9.24, 중통·중방)

(미상) 청천강 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건설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9.27, 중방)

(미상)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9.30,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즈음 교직원·학생에게 서한 전달 (9.30, 중통·중방·평방)

강하국(보건상)

09.02 제4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참가(9.2, 중통)

09.29 보건 산소공장 조업식 참가(9.29, 중통·중방)

고인호(내각 부총리, 농업상)

09.05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6, 중통·중방)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09.23, 중통)

곽범기(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 알곡증산 성과'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6, 평방·중방)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09.23, 중통)

김경남(상업상)

09.28 제14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 개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김기남(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08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련 주체사상 국제 토론회 참가(9.9, 중방)

09.08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을 위한 연회 마련(9.8,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 성과 이룩'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6, 평방·중방)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09.23, 중통)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김덕훈(내각 부총리)

09.06 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 참가(9.6, 중통)

09.20 제16차 '5.21 건축 축전' 개막식 참가(9.20, 중통·평방)

09.21 제11차 건축 미학 토론회 참가(9.21, 중통)

09.23 제16차 '5.21 건축 축전' 폐막식 참가(9.20, 중통)

김락겸(전략군 사령관)

(미상)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시 맞이(9.6, 중통·중방·평방)

김성일(함경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09.17 '핵실험' 성공 경축 함경남도 군민 연환대회 참가(9.17, 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5, 중방)

09.22 김정숙 사망('49.9.22) 67주기 즈음하여 김정숙 동상(대성산 혁명열사릉)에 헌화(9.22, 중통·중방)

09.29 보건 산소공장 조업식 참가(9.29, 중통·중방)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북-쿠바 단결위원장)

09.06 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 참가(9.6, 중통)

09.06 제42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참가(9.6, 중통·중방)

09.13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전국 대학생 발명전시회 개막식 참가(9.13, 중통·중방)

09.13 주북 쿠바 대사, 정권수립일(9.9) 68주년 즈음 대사관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13, 중통·중방)

09.20 ~21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토론회 참가(9.21, 중통·중방)

09.26 제17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개막식 참가(9.26, 중통)

09.29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국제 학술토론회 개막식 참가(9.30, 중통)

09.29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에 보낸 김정은 서한 전달모임 참가(9.30, 중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09.02 베트남 건국일을 맞아 同國 주석에게 축전(9.2, 중통·중방)

09.03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망 관련 同國 국회 상원의장에게 조전(9.3, 중통)

09.07 주북 이집트 대사 신임장 접수(9.7, 중통)

09.07 프랑스 AFP 통신사 사장 일행과 담화(9.7, 중통)

09.07 재선 잠비아 대통령에게 축전(9.9, 중통·중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09 브라질 독립 194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9, 중통·중방)

09.09 정권 수립일 68주년 경축연회 참가(9.9, 중통·중방)

09.09 음악 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 관람(9.9, 중통·평방)

09.09 정권수립 68돌 즈음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9.9, 중방)

09.09 정권수립 68돌 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09.11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11, 중통)

09.13 북한 대표단(단장 :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베네수엘라) 참가 위해 평양 출발(9.13, 중통·중방)

09.16 멕시코 독립 206주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16, 중통·중방)

09.16 말리 공화국 선포 56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21, 중통)

09.18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수반들과 담화(9.20, 중통·중방)

09.20 네팔 국경절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20, 중통·평방)

09.24 북한 대표단(단장 :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참가 후 귀환(9.25, 중통·중방)

09.28 라오스 고위청년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9.28, 중통·중방)

09.29 再 선거된 가봉 대통령에게 축전(9.29, 중통·중방)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28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과 담화(9.28, 중통)

김영재(대외경제상)

09.05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9.5~9.8) 개막식 참가(9.5, 중통·중방)

김영철(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2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 청년들을 위한 연회 참가·연설(9.2, 중통)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김재룡(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09.06 김일성·김정일 자강도 현지지도 5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9.7, 중방)

김정숙(대외문화 연락위원장 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장)

09.13 주북 쿠바 대사, 정권수립일(9.9) 68주년 즈음 대사관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13, 중통·중방)

09.26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 참가(9.26, 중통·중방)

09.26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가(9.26, 중통·중방)

09.28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폐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김정순(여맹위원장)

09.05 '조선여성' 잡지 창간 7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9.5, 중통)

김정식(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시 동행(9.6,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시험 지도 시 맞이(9.20, 중통·중방)

김평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22 김정숙 사망 67주기 즈음 김정숙 동상(대성산 혁명열사릉)에 헌화(9.22, 중통·중방)

노광철(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미상) 김정은, 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1, 중통·중방)

09.05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6, 중통·중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25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26, 중통·중방)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09.05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6, 중통·중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남흥 청년화학기업소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5, 중방)

09.22 김정숙 사망 67주기 즈음 김정숙 동상(대성산 혁명열사릉)에 헌화(9.22, 중통·중방)

09.25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26, 중통·중방)

리길성(외무성 부상)

09.01 주북 베트남 대사관이 마련한 '自國 창건' 71주년 초청 연회 참석(9.1, 중통·중방)

리룡남(내각 부총리)

09.05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9.5~9.8) 개막식 참가(9.5, 중통·중방)

09.16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개막식 참가(9.16, 중통·중방)

09.22 김정숙 사망 67주기 즈음 김정숙 동상(대성산 혁명열사릉)에 헌화(9.22, 중통·중방)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가(9.23, 중통)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가(9.23, 중통)

리만건(당 중앙위 부위원장)

(미상) 김정은, 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1,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시 동행(9.6, 중통·중방·평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미상)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22, 중통·중방)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09.02 황해남도 안악군 농업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참가(9.2, 중통)

리명수(총참모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리병철(당 중앙위 제1부부장)

(미상) 김정은, 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1,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시 동행(9.6, 중통·중방·평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서해 위성발사장 방문,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시험 지도 시 맞이(9.20, 중통·중방)

리상원(양강도 당위원회 위원장)

09.17 '핵실험' 성공 경축 양강도 군민 연환대회 참가(9.17, 중통)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9.23, 중통)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0 방북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일행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9.10,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29 신임 駐北 이집트 대사화 담화(9.29, 중통)

리용호(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09.01 슬로바키아 외무 및 유럽관계상(미로슬라브 라이차크)에게 '슬로바키아 국경절' 축전(9.1, 중통)

09.02 베트남 건국일을 맞아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9.2, 중통·중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09 브라질 독립 194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9.9, 중통·중방)

09.12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참가 위해 평양 출발(9.12, 중통·중방)

09.07 니카라과 독립 195주년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9.14, 중통)

09.15 ~16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9.16, 중통·중방)

09.16 멕시코 독립 206주년 즈음하여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9.16, 중통·중방)

(미상)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외무상들과 담화(9.20, 중통·중방)

09.23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 주장 연설(9.24, 중통)

(미상)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 참석한 외무상들과 담화(9.27, 중통)

09.29 북한 대표단(단장 : 리용호),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참가 후 귀국(9.29, 중통)

리일환(당 중앙위 부장)

09.05 '조선여성' 잡지 창간 7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9.5, 중통)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09.13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전국 대학생 발명전시회 개막식 참가(9.13, 중통·중방)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 지도 시 동행(9.15, 중통·중방)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09.01 주북 베트남 대사관이 마련한 '自國 창건' 71주년 초청 연회 참석(9.1, 중통·중방)

09.07 주북 브라질대사, '自國 독립' 194주년 즈음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7,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09.01 신임 튀니지 수상에게 축전(9.2, 중통·중방)

09.02 베트남 건국일을 맞아 同國 수상에게 축전(9.2, 중통·중방)

09.05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6, 중통·중방)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보고(9.8, 중방·평방)

09.09 정권수립 68주년 경축연회 참가(9.9, 중통·중방)

09.09 정권수립 68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9.9, 중방)

09.09 정권수립 68돌 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5, 중방)

09.15 추석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09.19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방문(9.19, 중통·중방)

(미상) 함북 피해 복구 자재를 수송하는 '남포항·원산항' 현지 방문(9.23, 중통·중방)

09.20 네팔 국경절 즈음하여 同國 수상에게 축전(9.20, 중통·평방)

(미상)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 방문(9.25, 중통·중방)

09.25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26, 중통·중방)

09.29 보건 산소공장 조업식 참가(9.29, 중통·중방)

(미상)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 시 동행(9.30, 중통·중방·평방)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박영래(전략군 정치위원)

(미상)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시 맞이(9.6, 중통·중방·평방)

박영식(인민무력상)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미상) 회령시 피해 복구 전투에서 승리 쟁취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 궐기모임 참가(9.19, 중방·노동)

박영호(황해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09.20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한' 옹진 광산에 '축하문' 전달모임 참가(9.21, 중방)

박춘남(문화상)

09.16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개막식 참가·연설(9.16, 중통·중방)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가(9.23, 중통)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가(9.23, 중통)

09.24 영화무대 미술제작소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9.25, 중통·중방)

09.27 제35차 윤이상 음악회 관람(9.27, 중통)

09.28 제14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 개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박태덕(황해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09.20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한' 사리원 대성 타올 공장에 '축하문' 전달모임 참가(9.21, 중방)

09.27 김일성 황해북도 현지지도 49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9.28, 중방)

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09.12 안주 펌프공장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3, 중방)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미상) 강원도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9.18, 중통·중방)

(미상)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지도 시 동행(9.24, 중통·중방)

신홍철(외무성 부상)

09.07 주북 브라질대사, '自國 독립' 194주년 즈음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7, 중통·중방)

심국룡(외교단 사업 총국장)

09.07 주북 브라질대사, '自國 독립' 194주년 즈음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7, 중통·중방)

안정수(당 중앙위원회 부장)

(미상)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 시 동행(9.30, 중통·중방·평방)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3 주북 쿠바 대사, 정권수립일(9.9) 68주년 즈음 대사관에서 마련한 연회 참석(9.13, 중통·중방)

09.16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개막식 참가(9.16, 중통·중방)

09.16 노동당 중앙위원회, 평양철도국 서평양 기관차대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모임 참가(9.17, 평방)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가(9.23, 중통)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5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6, 중통·중방)

09.06 만경대 알루미늄 창 공장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9.6, 중통)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 (9.13,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25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26, 중통·중방)

윤동현(인민무력부성 부상)

09.03 인민무력성 대표단(단장 : 윤동현) 러시아 국제 군사기술연단 '군대-2016' 참가(9.3, 중통)

09.10 인민무력성 대표단(단장 : 윤동현) 러시아 국제 군사기술연단 '군대-2016'에서 귀환(9.10,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장철(국가과학원장)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09.06 제42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참가(9.6,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3 평안북도 룡천군 청년전위들 궐기모임 참가(9.13, 중통)

09.27 청년동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9.27, 중통)

조석호(수도건설 위원장)

09.06 만경대 알루미늄 창 공장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9.6, 중통)

09.20 제16차 '5·21 건축 축전' 개막식 참가(9.20, 중통·평방)

조연준(당 중앙위 제1부부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09.28 제14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 개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조용원(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9.13, 중통·중방)

(미상)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지도 시 동행(9.24, 중통·중방)

(미상)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 시 동행(9.30, 중통·중방·평방)

주영길(직총 중앙위원장)

09.07 정권 수립 68주년 경축 전국 직맹 초급단체 예술소품공연 관람(9.7, 중통·중방)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09.06 평양 초밥 전문식당 개업식 참가(9.6, 중통·중방)

09.16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개막식 참가(9.16, 중통·중방)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가(9.23, 중통)

09.23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가(9.23, 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09 음악 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 관람(9.9, 중통·평방)

09.09 정권수립 68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9.9, 중방)

09.09 정권수립 68돌 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평양 326전선공장에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5, 중방)

09.15 추석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09.23, 중통)

최부일(인민보안상)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25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9.26, 중통·중방)

최상건(당 중앙위 부장)

09.13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전국 대학생 발명전시회 개막식 참가 (9.13, 중통·중방)

09.20 ~21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토론회 참가 (9.21, 중통·중방)

최일룡(경공업상)

09.28 제14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 개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최태복(당 중앙위 부위원장)

09.02 제4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참가(9.2, 중통)

09.06 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 참가(9.6, 중통)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사회(9.8, 중방·평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 지도 시 동행(9.15, 중통·중방)

09.14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 '200일 전투에서 첨단 돌파전' 축하문 전달 모임 참가(9.15, 중방)

09.26 제10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 참가(9.26, 중통·중방)

09.26 제10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가 (9.26, 중통·중방)

09.28 제10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폐막식 참가(9.28, 중통·중방)

09.29 보건 산소공장 조업식 참가(9.29, 중통·중방)

09.29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에 보낸 김정은 서한 전달모임 참가 (9.30, 중방)

0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관람(9.30, 중통)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09.08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을 위한 연회 참석(9.8, 중통·중방)

09.08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련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참가(9.9, 중방)

09.13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전국 대학생 발명전시회 개막식 참가 (9.13, 중통·중방)

09.20 ~21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토론회 참가 (9.21, 중통)

09.21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가 (9.21, 중통)

09.29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국제 학술토론회 개막식 참가(9.30, 중통)

홍승무(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22, 중통·중방)

한광상(인민군 중장)

(미상)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 (9.13, 중통·중방)

황병서(총정치국장)

09.08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9.8, 중방·평방)

09.09 음악 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 관람(9.9, 중통·평방)

09.09 정권수립 68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9.9, 중방)

09.09 정권수립 68돌 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미상)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 (9.13, 중통·중방)

09.13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9.13, 중통·중방)

09.15 추석맞이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헌화(9.9, 평방)

(미상) 강원도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시 동행(9.18, 중통·중방)

09.23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09.23, 중통)

월간 보도일지

대내동향

09.01(목)

■ 김정은 黨 위원장,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만건, 리병철, 노광철 참가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9.1)】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청춘들의 혁명적 신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 청년대군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자랑찬 노정이었다'며 '청년대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자평(중앙통신)

■ 전국 방송 선전차 방송원들의 방송 선동경연·예술선전대 경연 개막식(9.1), 오영철(문화성 부상, 개막사) 등 참가(중앙통신)

- 여명거리 건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연에는 성·중앙기관 경연과 각 도 경연에서 당선된 50여 명 방송 선전차 방송원들과 13개 예술 선전대 참가

■ 용전 과수농장(咸南道 북청군)의 올해 과일생산 계획 300% 초과 수행 등 '각지 과수농장들의 과일생산 증가 및 과수원 확장 변모' 선전(중앙통신)

- 최근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0여 정보의 키 작은 사과나무 밭 조성, 올해 상반년 기간에도 3,000여 정보 과수밭 새로 조성

■ 개건 준공(7.24) 된 중앙동물원(100여 정보, 40여 개 동물사·동물 740여종)의 '특색 있고 이채롭게 꾸려진 동물사들과 과학기술 보급실' 등 소개 및 "기념비적 창조물"로 선전(중앙통신)

■ 김정은 黨 위원장, 전귀복(女, 자강도 용림군)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09.02(금)

■ 北, 10호 태풍(라이언 록)으로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보도(중앙통신)

- 8월 29일 0시부터 9월 2일 12시(평양시간) 사이에 함경북도 경흥군과 부령군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320mm, 290mm임.
- 두만강 유역에 관측 이래 가장 큰물이 발생하여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회령시·무산군·온성군·경원군·경흥군·연사군·라선시의 일부 지역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음.

- 피해 상황은 회령시에서 15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함경북도에서 8,670여 동, 1만 7,180여 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및 부분 파괴되어 4만4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 피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해 지역들에서는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김일성·김정일의 청년운동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위대오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었다'며 '전체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휘날리며 백두산 청년강국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

■ 제4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9.2), 최태복(당 부위원장)·강하국(보건상, 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청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 공연(8.31~9.2), 4.25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황해남도 안악군 농업 근로자들의 궐기모임(9.2), 리명길(「농근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국 협동농장에서 진행(중앙통신)09.03(토)

■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8.28~9.2 평양 체류의 나날을 보내고 10만여 명의 환송을 받으며 귀가(중앙통신)

■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제작(중앙통신)

09.04(일)

■ 선군은 '세계 정의 수호,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위력한 힘, 백두산 민족의 억센 힘이며 과학이고 진리"라고 '선군 정치'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선군은 자주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다)

■ 200일 전투기간 남대문 4거리 등 중심도로 폭이 종전보다 넓어지고 도보 길·자전거 도로 포장 등 "개성시 중심도로 개건" (중앙방송)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일꾼–탄부들, 8월 200일 전투 목표 완수 및 3만 1천 8천여t 석탄 생산 보도(평양방송)

■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9.05(월)

■ 강원도 인민병원 창립(1946.9.5) 70주년 기념 보고회(9.4), 현지 진행(중앙방송)

■ 김일성 저작(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39주년을 맞으며 '인재의 대부대만 있으면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 강국·경제 강국·문명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인재강국'의 중요성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를 인재강국으로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일 저작 발표 8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라며 '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며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다'고 칭송 및 '200일 전투장마다에서 영웅적 위훈의 자욱을 새겨 나갈 것'을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공화국을 천하제일 강국으로 빛내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

※ 저작: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 개막식(9.5~9.8),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김인철(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박웅식(조선국제전람사 사장, 개막 연설),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축하 연설), 경제무역 부문 일꾼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 대표단들 등 참가
-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쿠바, 뉴질랜드, 호주 등 280여개 회사들이 상품을 출품

■ 정권수립(9·9절) 68주년 즈음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주체사상국제연구소 주최), 평양에서 9월 5일 진행(중앙통신)

■ '조선여성' 잡지 창간 70주년 기념 보고회, 리일환(黨 부장)·김정순(여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9월 5일 진행(중앙통신)

■ 한원명 기계공업성 부상, 8월 31일까지 200일 전투 계획의 58% 성과 이룩 주장(중앙방송)

* 전자공업성, 8월 31일까지 200일 전투 계획의 52.6% 성과 이룩(중앙방송)

09.06(화)

■ 김정은 黨 위원장,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리만걸, 리병철, 김정식을 비롯한 당 중앙위 책임 일꾼들과 국방과학 연구부문 일꾼들이 참관, 김락겸(전략군 사령관), 박영래(전략군 중장) 등이 맞이
-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배비한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 포병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
- 김정은은 핵 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체적 핵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사적 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9월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보고), 오수용, 로두철, 노광철, 리무영, 고인호, 당·무력·정권기관·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등 참가

-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당의 인민경제 계획화 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경제 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 관철과 당면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경제지도 일꾼들과 계획 일꾼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계획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 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 토의

-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발표한(9.3) 저작 《계획화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를 오수용(黨 부위원장)이 전달

■ 「농근맹」 제8차 대회, 2016년 12월 상순 평양에서 개최 예고(중앙통신)

- 대회에서는 농근맹 제7차 대회 이후 동맹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농근맹 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됨.

■ 北, 함경북도 홍수 피해로 사망 60명·실종 25명 보도(중앙통신)

- 논밭 7,980여 정보가 침수되고 2,100여 정보가 매몰·유실되었으며, 근 50개소 7만 9,800여 m의 도로와 노반, 6개소 2,215㎡의 다리, 1개의 발전소 언제가 파괴되었음.
- 국가적으로 큰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30), 김양건(前 통일전선 부장) 등 11명에게 '조국 통일상' 수여(중앙통신)

■ 北, 9월 6일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열사들(안경호 前 조평통 서기국장, 리찬복·리동규 인민군 장령, 전명섭 반일 애국열사) 유해 새로 안치(중앙통신)

■ 만경대 애국늄(알루미늄) 창(窓) 공장 창립('86.9.7) 30주년 기념보고회(9.6), 오수용(당 부위원장)·조석호(수도 건설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남새 및 녹비작물 종자 생산에 대한 민족토론회'(9.5~6),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 과학연구소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토론자들은 남새 및 녹비작물 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그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해설하였음.

■ 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9.6),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최태복(당 부위원장), 김덕훈(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참가

■ 제42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폐막식(9.6),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초밥 전문식당 개업식(9.6),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개업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태권도 위원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소학교부터 태권도에 대해 잘 알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며 '조선에서 태권도 대중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北,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중등 일반 교육부문에서 500여 개 학교에 3,200여 개 교실이 새로 꾸려지는 등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 추진(중앙통신)

■ 제12차 전국 농업근로자 농구경기(9.6~9), 능라 인민체육공원에서 진행(중앙방송)

09.07(수)

■ 全民 "200일 전투기간 이룩한 성과" 치하 및 "우리 앞에는 많은 전투 과제가 남아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발악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며 "연속공격, 계속 전진으로 200일 전투를 더욱 힘 있게 벌려 승리적으로 결속해 나갈 때"라고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200일 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향하여 연속공격, 계속 전진해 나가자)

■ 김일성·김정일 자강도 현지지도('66.9) 50주년 기념 보고회(9.6), 강계시에서 진행, 김재룡(자강도 당 위원장, 기념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백두산 절세위인들 현지지도 사적비 〈만대에 길이 빛나라 선군총대의 고향이여〉, 평천 혁명사적지에 건립 준공식(9.7)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권수립' 68주년 경축 전국 직맹 초급단체 예술소품공연 〈무궁 번영하라 나의 조국이여〉, 철도성 문화회관에서 9월 7일 진행, 주영길(「직총」 위원장) 등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계획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과 조국 해방 전쟁사적지 참관 및 과학기술전당·능라 곱등어관·문수 물놀이장 방문 휴식(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형직사범대학 원격교육 대학의 원격교육 시작,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 사업에서 큰 진전" 보도(중앙통신)

* 원산 청년발전소, 4일까지 "200일 전투 계획 100.1% 완수"(중앙방송)

* "농업발전을 추동하는 연구 성과들"이라고 '농업정보 기술에 의한 알곡 작물 예상수확고 평가방법 및 균형진동식 종합 토양관리 농기계' 등 소개(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 지방 순회공연(9.7, 삼지연군) 시작(중앙통신·중앙방송)

09.08(목)

■ 【정권 수립일(9·9절) 68주년 관련 대내외 동향(9.8)】

* 정권 수립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내각 총리, 보고), 최룡해, 최태복(사회) 등 참가
- 보고자는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며

- '김정은 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모두 다 黨 중앙위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주장

*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무도회,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무관단, 평양 중등학원과 김일성정치대학을 참관하고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自國 대통령의 꽃바구니를 리용호 외무상에게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항일 혁명열사 장울화 가족,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외국 선박 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 인구기금 대표부 성원들, 駐北 유엔 개발계획, 세계 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北赤', 함경북도 큰물 피해지역 긴급 구호활동 전개(중앙통신)

- 비축하였던 5,000여 세대분의 긴급 구호물자(천막, 부엌 세간, 이불, 물통 등 각종 생활필수품)들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보내주었으며, 여러 곳에 구급처치 초소들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긴급구호 물자 분배사업도 적극 방조

■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준공식(9.8), 자강도 강계시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흥주 청년 3호발전소 조업식(9.8),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혁명지도 표식비 준공식, 평남 관개관리소·해소 양수장·청진 염소목장·평양 체육 기자재 공장에서 진행(중앙통신)

09.09(금)

■ 【北 정권수립(9.9) 68주년 대내외 동향】

*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주최로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기남(黨 부위원장), 태형철(고등교육상) 등 참가

* '공화국 창건은 위대한 강국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공화국은 김일성·김정일의 탁월한 국가 건설사상과 불멸의 영도업적, 무한한 애국헌신의 결정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공화국은 존엄 높고 강대한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위용 떨칠 것이다)

*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 일꾼들,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권수립' 68주년 경축연회(9.9), 김영남(연설)·박봉주 등 국가와 군대의 책임 일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음악 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9.9), 김영남·황병서·최룡해 등이 관람한 가운데 봉화 예술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9.9),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2차 전국 농업 근로자 농구경기(9.5~9),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인민군 장병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청소년 학생들,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
*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등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핵무기 연구소 성명(9.9)】 '북부 핵 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5차 핵실험 공식 발표(중앙방송·조중TV·중앙통신)

- 핵시험에서는 전략 탄도 로켓들에 창작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음.
- 핵탄두 폭발 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北)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임.

*「총련」 조직과 단체들, 김정은에게 축전(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26), 대동강 가구공장에 김일성 훈장 수여(중앙방송)

09.10(토)

■ 김정은 黨 위원장,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노동당 중앙위」 '전체 당원·인민군 장병·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9.10)'】 함북도 홍수 피해(수만 세대 살림집 파괴 등)로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부 피해 복구 전환 중대결단을 내렸다"며 全民 '일심단결의 피해 복구 총동원·총집중' 호소(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여명거리 건설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일체 건설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전선에 돌리는 조치부터 취하였음.
- '타격력이 높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와 탄도로켓도 귀중한 우리 인민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북부 피해 복구 전투는 우리 당의 인민 사수전, 인민 복무전임'

■ "백두산 절세위인들 형상" 모자이크 벽화,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평양 블로크공장·금성 식료공장에 각각 건립 준공(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학영(군관)·이운철(삼석구역 청년동맹 지도원)·정순도(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실장), '선군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미제에 대한 준엄한 철추, 우리를 건드릴 자 세상에 없다'고 5차 핵실험 반향(중앙방송)

*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명호·부장 이경호도 '핵보유국 긍지, 미국과 괴뢰 역적패당에 대한 철추'라고 강조(중앙방송)

■ 리호철(석탄공업성 부상), 200일 전투 진입 후 현재까지 100일간 '일평균 103% 수행 및 근 5만t 석탄 증산' 주장(중앙방송)

09.11(일)

■ 北,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9.16~23) 개최 예정 보도(중앙통신)

■ '200일 전투' 주력부대들, 북부 피해 복구 전선으로 급파되고 있다고 소개(중앙통신)

■ 北, 핵탄두 폭발 실험 성공 소식을 접한 '각 계층 근로자들의 격동된 심정 토로' 보도(중앙통신)

- 인민경제대학 교원 정원섭,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 최광호 등

■ 국가과학원 중앙 버섯연구소, 우량품종의 버섯육종과 재배연구에서 성과 이룩(중앙통신)

- 리선희 소장은 '강냉이 속, 볏짚 등을 이용한 사철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온성 및 저온성 버섯품종들과 약용 버섯품종들을 육종해 냈다'고 소개

09.12(월)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만이 펼칠 수 있는 거창한 투쟁'이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북부 지대의 큰물 피해 복구 전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수해 복구' 연일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당의 호소 따라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자)

* 北, 북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철강재 생산과 위생 방역 사업 등 수해 복구에 주력(중앙통신)

■ 제16차 '5.21 건축 축전'과 제11차 건축미학 토론회,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예정(중앙통신)

■ '세계 구급처치의 날'(9.15)에 즈음한 행사(9.12),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9.12), 평강 고기 가공공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09.13(화)

■ 김정은 黨 위원장,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오수용, 조용원, 한광상 동행 및 해당 단위와 농장 일꾼들 맞이
- 김정은은 '농장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밭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며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만족감을 표시
- 또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우리나라(北)의 실정에 맞게 종자 혁명을 해야 한다'며 '가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 냉해와 고온 피해, 병충해에 견딜성이 강한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

■ '5차 핵실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9.13, 김일성 광장) 진행 및 박봉주(내각 총리)의 '핵무기연구소 성명(9.9)' 낭독과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 축하 연설(중앙방송·중앙통신)

- 주석단 :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수길(평양시 당 위원장, 사회) 등
-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임(김기남)
- 우리의 존엄과 권위를 해치려고 조금이라도 움쩍거린다면 강력한 핵 선제 타격으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겠음(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
-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핵분열 탄이든, 핵융합 탄이든 어떤 운반수단에도 다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확고히 올라섰음(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 최철(인민경제대학 교수)·리철수(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실장), '北의 핵무기 병기화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 반향(중앙통신)

■ 함북도 북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식수 공급 시작 및 도로와 통신망 연결로 식료품·피복류·의약품·자재와 설비 등 피해 복구용 물질들과 건설역량' 투입(중앙방송·노동신문)

* 성·중앙기관 일꾼-당원-근로자들이 마련한 식량 및 지원물자 수송 열차, 연속 평양 출발 및 피해 지역 도착(중앙방송)
* 10일 현재 "30여 개소에서 산사태로 인한 3만 5,400여㎡의 감탕 처리 및 20여 개소의 철길노반 복구"(중앙통신)

- 부령군 고무산역-무산역과 고무산역-학송역 사이 철길이 회복되었으며 백암-굴송, 고무산-서풍산, 고무산-학포, 학송-남양 사이의 철길 개통

■ 「노동당 중앙위」의 '200일 전투 목표 조기 수행(연간생산 계획 7월말·200일 전투 목표 8월말)' 안주 펌프공장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보내는「축하문」전달 모임(9.12) 현지 진행 및 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장, 축하문 전달) 등 참가(중앙방송)

■ 전국 대학생 발명 전시회(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개막식 진행(9.13, 과학기술전당), 기계공학 등 11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회에 전국 각지 50여 개 대학에서 800여 건의 발명 및 새 기술 성과자료들 출품(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철도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설 준공식(9.13) 진행, 전자열람실 등 "교육 및 과학연구 사업과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전투에서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평안북도 룡천군 청년전위들 궐기모임(9.13), 신암 협동농장에서 진행 및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 참가(중앙통신)

09.14(수)

■ '핵실험' 성공 경축 평안남도·남포시 군민 연환대회(9.14), 각각 진행(중앙통신)

■ 北 외무성, 駐北 아시아 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세 통보모임 개최(중앙통신)

- 모임에는 駐北 몽골,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대사들과 임시 대리대사들이 참가
- 최희철(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은 핵탄두 폭발실험과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통보와 함경북도 북부에서 발생한 큰물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

■ 전국 기상수문 부문 과학기술발표회(9.13~14), 조선 과학 기술총연맹(과기총) 중앙위 주최로 기상수문국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를 총궐기·총집중하여 힘있게 벌리고 있다고 연일 보도(중앙통신)

- 김정은이 200일 전투의 주 타격방향, 최전방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으로 정하고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복구전투를 벌리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다고 주장

* 한용철 철도성 국장, 피해 복구 지역에 대한 철도화물 집중수송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

* 금속공업 부문,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수백 톤의 철강재를 보내주었다고 보도(중앙통신)

09.15(목)

■ 김정은 黨 위원장,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 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당 부위원장), 강봉훈(당 부부장),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동행
- 김정은은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문제, 시설물들을 애호 관리할 데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들에도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 생산기지를 일떠세울 데 대하여 지시

■ 황병서·박봉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 일꾼들, 추석을 맞아 9월 15일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조국 해방 전쟁 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박봉주 내각 총리 참가)·평양 326전선공장(최룡해 당 부위원장 참가)·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로두철 내각 부총리 참가)·김정숙 평양 방직공장(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 참가)에 9월 14일 '축하문' 각각 전달(중앙방송)

■ 北, '피바다 가극단과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등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함경북도로 떠나갔다'며 '전체 인민이 북부 피해 복구 전선을 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연일 '수해 복구' 독려(중앙통신)

■ 北 선수들, '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노장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이탈리아, 9.7~11)에서 종합 우승 및 9월 15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9.16(금)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개막식(9.16, 청년중앙회관) 진행 및 축전 조직위원회에서 연회(옥류관) 개최(중앙방송·중앙통신)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리룡남(내각 부총리)·박춘남(축전 조직위원장·문화상, 개막 연설)·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김인범(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참가 및 주북 외교·국제기구 대표 부부 등 초대

■ 「노동당 중앙위」,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 일꾼들에게 '200일 전투 성과 이룩' 「축하문」 전달(9.14, 김기남 당 부위원장)(평양방송·중앙방송)

*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 일꾼들에게도 '200일 전투 알곡증산 성과' 「축하문」 전달(9.14, 곽범기 당 부위원장)(평양방송·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자들에게 '200일 전투에서 첨단 돌파전' 「축하문」 전달(9.14, 최태복 당 부위원장)(평양방송·중앙방송)

■ '5차 핵실험 성공' 경축 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강원도·라선시 군민 연환대회(9.16) 각각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중요 대상건설(여명거리 등)을 중지하고 함경북도 피해 복구 전투를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한 黨의 의도에는 "인민사랑의 사랑의 세계가 어려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양강도 예술단, 삼지연군에서 공연 개막(9.7) 이후 혜산시에서 공연활동 전개 등 양강도 순회공연 연일 진행(중앙통신)

09.17(토)

■ '핵실험' 성공 경축 함경남도·양강도 군민 연환대회(9.17), 해당지역에서 각각 진행(중앙통신)

■ 北, 함북 북부지역을 돕기 위해 사회주의 사회의 대풍모가 높이 발양되고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12일 현재 1,000t의 식량과 많은 양의 식료품, 피복류와 이불, 가정용품을 비롯한 수백만 점의 생활필수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된 데 이어 지원물자들이 연속 도착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의약품과 수천 t의 시멘트, 수백 t의 철강재와 연유도 피해 지역에 도착하여 복구 전투에서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 있음

■ 北,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한 '낙원 대경 배수리공장'에 '2중 3대 혁명 붉은기' 수여(중앙방송)

■ 평양 철도국 서평양 기관차대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 모임(9.16), 현지에서 진행(평양방송)

- 양형섭, 김두일(철도성 정치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문 채택

■ 대동강 돼지공장, '현대적인 축산물 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소개(중앙통신)

- 10여 가지의 맛좋은 고기 가공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 공정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 질 좋은 비료를 원만히 보내주고 있음

09.18(일)

■ 김정은 黨 위원장, 강원도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동행 및 함종철(강원도 고산군위원장) 맞이
- 종업원들의 살림집 문제, 돼지목장들을 더 건설할 데 대한 문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문제를 풀 데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당 중앙위 명의의 '특별감사' 전달

■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한'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덕천지구 탄광 연합기업소·문덕 수산사업소에 9월 16일 '축하문' 각각 전달(중앙방송)

■ '5차 핵실험 성공' 경축 평안북도·함경북도 군민 연환대회, 9월 17일과 18일 각각 진행(중앙통신)

■ 北,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건설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 완료(중앙통신)

■ 당 중앙위의 '함경북도 피해 복구 총력 호소문' 호응 궐기모임, 각지 공장·기업소·농장들에서 진행(중앙방송)

09.19(월)

■ 김정은 黨 위원장, 최동륜·황신률(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에게 80살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및 협의회를 통해 "환강(丸鋼)을 규격별로 생산하여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문제들 토의"(중앙통신·중앙방송)

- 이에 앞서 농업과학원 과수학 연구소를 현지에서 요해하고 연구소 개건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해당한 조직사업을 하였음.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에서 가장 선차적 건설대상은 "인민들 살림집 건설"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全民의 '시멘트 등 자재, 설비 생산을 위한 증산 돌격전' 독려(중앙방송·노동신문/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의 승리를 위한 증산 돌격전을 힘 있게 벌리자)

* 인민무력성 군인 궐기모임(회령시 피해 복구 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 쟁취를 위한) 현지 진행 및 박영식(인민무력상·육군 대장) 등 참석(중앙방송·노동신문)
*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철길 복구(40개소, 수십km) 및 9월 17일 첫 열차 무산역 도착(중앙방송·노동신문)
* 기계공업 부문의 피해 복구 전투 총력 집중(낙원기계 연합기업소, 건설 역량·설비·장비들 급파) 및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에서 생산돌격전 전개(매일 계획 120% 이상)와 육해운 부문의 피해 복구 해상수송 진입(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 발표(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2014.9.18) 2주년 즈음 同기간 청년들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들로 성장' 주장 및 '200일 전투 및 특히, 수해복구 결사전 전개' 치하(중앙통신·노동신문/당의 영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풍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308호(9.11)】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한" 단위(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등 30개)에 「모범 준법단위」 칭호 수여(중앙방송)

■ 애국 편직물공장의 '매일 생산실적 105% 수준 도달 및 수풍발전소의 전력생산 계획 105% 초과' 보도(중앙방송)

09.20(화)

■ 김정은 黨 위원장,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시험 지도(서해위성발사장 방문) 및 "대성공"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 리병철·김정식 등 당 중앙위 책임 일꾼들과 국가 우주개발국 일꾼들 맞이
- 대출력 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정지위성 운반로켓을 확고히 개발 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음.

■ 김정은 黨 위원장, 故 최원창 영전에 화환(9.20) 전달(중앙통신)

- 최원창: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 노력영웅, 교수

■ '제16차 5.21 건축 축전 개막식(9.20)', 김덕훈(내각 부총리), 조석호(수도 건설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 도서 전람회, 9.26~28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09.21(수)

■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한' 사리원 대성 타올 공장·옹진 광산에 9월 20일 '축하문' 각각 전달(중앙방송)

■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철길 복구 사업(흙사태 처리 65%, 노반 복구 70%, 전차선 전주 복구 35% 수행) 진척으로 여러 구간 철길 개통(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 지방 순회공연, 9월 21일부터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토론회(9.20~21),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중앙통신)

- 최상건(당 중앙위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9.21~27), 태형철(개막 연설)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개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조선 우표 전시회(9.21~10.2),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막(중앙통신)

■ '평양 피복 공장' 창립('46.9.20) 70주년 기념보고회(9.20),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 및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평양방송)

■ 제11차 건축 미학 토론회(9.21), 김덕훈(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전국 금속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9.20~21), 조선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2016'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09.22(목)

■ 김정은 黨 위원장,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 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만건, 홍승무 참가

■ 김정숙(김정은 祖母) 사망('49.9.22) 67주기 즈음 김평해·로두철·김수길·리룡남 및 당·무력·정권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인민군 장병 등, 김정숙 동상(대성산 혁명열사릉)에 9월 22일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이 보낸 화환이 동상 앞에 놓여있었으며', 회령시·김정숙군·김정숙 해군대학 등지에 있는 김정숙 동상에도 꽃바구니 진정

* '김정숙의 당 건설과 강화발전 업적 및 수령 결사옹위 귀감' 부각 선전(중앙통신/조선노동당 건설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김정숙 동지의 업적 등)

■ 대동강 가구공장에 9월 21일 '김일성 훈장' 수여(중앙방송)

* 노동당 중앙위의 남포 대경 수산사업소 어로공 등에 보내는 '축하문(8월 말까지 수산물 생산계획 150% 초과 완수 등 '200일 전투 성과')' 전달 모임(9.21) 진행(중앙방송)

■ 전국 일용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조선 과학기술 총연맹 주최, 9.21-22 낙랑 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폐막식(9.22)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 일꾼·과학자·기술자들 참가, 40여 건의 성과자료 발표 및 30여종의 300여점 제품들 전시

■ 남포항에서 시멘트 선적 화물선의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지역으로 출항(9.21)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 국가과학원 연구사들, 과학연구 성과(내열 시멘트 생산 공정 확립으로 시멘트 증산 돌파구 마련 등)로 '피해 복구 사업 지원'(중앙통신)

* 경원군(함경북도)의 매일 평균 1,500여 명 노력 동원, 9월 20일까지 살림집 기초굴착 작업 완료 등 '피해 복구 성과'(중앙방송)

■ 평양시 내 공장·기업소들(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290명의 연간계획 완수자 영예 등)에서 '인민경제 계획 조기 완수자 1,000여 명 배출 등 인민경제 계획 완수자 증가' 선전(중앙통신)

* 고산 과수종합농장 생산 사과, 원산시내 주민에 공급 및 개성시 풍덕 협동농장에 40여 세대 살림집 새집들이(9.21) 등 '새 농촌마을 건설'(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9.23(금)

■ 노동당 중앙위, 고산 과수종합농장 전체 종업원·일꾼들에게 '감사문' 전달(중앙방송)

■ 김정일 동상 제막식(9.23), 삼지연군에서 진행(중앙통신)

-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 곽범기, 고인호(내각 부총리), 리상원(양강도당 위원장) 등 참가

■ 박봉주(내각 총리), 함북 피해 복구 자재를 수송하는 '남포항·원산항'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내각 총리는 시멘트 상선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으며, 짐배들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고 상선 및 하선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국제 학술토론회, 9.29~30 진행 예정(중앙통신)

- '과학발전과 사회적 진보'라는 주제 밑에 세계 여러 나라의 권위 있는 교육자, 과학자들 참가 예정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폐막식(9.23),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양형섭, 리룡남(내각 부총리), 박춘남(영화제 조직위원장·문화상, 폐막 연설),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김인범(문화성 부상, 영화총국 총국장) 등 참가

* 내각, 축전 참가자들을 위해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9.23) 마련(중앙통신)

- 리룡남, 박춘남, 차희림, 김인범 등 참가

* 축전 참가자들, 김정은에게 9월 23일 편지 전달(중앙통신)

■ 제43차 전국 농기계 전시회 및 창안자 회의, 9.20~22 황해북도 신계군에서 진행(중앙통신)

- 30여 종 240여 대의 농기계·부속품·지구장비들이 전시회에 출품

■ '제16차 5.21 건축 축전 폐막식(9.23)', 김덕훈(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성일 보통교육성 국장, 함북 북부 피해 지역에 보낼 교과서와 참고서, 교육기자재 생산전투에서 성과 선전(중앙통신)

- 수백여 종에 20만 6,000여점의 교과서·참고서와 1만여 점의 실험기구와 시약들 긴급 수송

*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광산연합기업소, 피해 복구 성과 나날이 확대(중앙통신)

- 서풍산역으로부터 무산군으로 들어오는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지원물자 수송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 공정 복구 사업을 진행하여 부분적으로 쇠돌 생산

09.24(토)

■ 김정은 黨 위원장,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 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

- 서홍찬, 조용원이 동행한 가운데 김정은은 '주사기의 다종화 실현을 위한 투쟁과 공장의 현대화를 지시

■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평천 혁명사적지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우표 발행국,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2016' 기념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중앙통신)

09.25(일)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및 '수해복구가 확대되는데 맞게

증산문제 협의'(중앙통신·중앙방송)

- 이에 앞서 기업소 전용선들을 돌아보면서 시멘트를 허실 없이 피해 복구 전선으로 긴급히 보내주도록 철도 수송 전사들을 고무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319호(9.21),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지방예산제 모범 구역 칭호' 수여(중앙방송)

■ 영화무대 미술제작소 창립('56.9.25) 60주년 기념 보고회(9.24) 진행, 박춘남(문화상)·김창덕(소장, 기념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농업출판사 창립('46.9.25) 70주년 기념 보고회(9.25)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안북도, '생활필수품 22만 3,000여점과 각종 공구·기자재 2만 2,000여점' 등 평북도·자강도·황남도 수해지원(중앙통신)

- 황해남도에서 시멘트 수송에 필요한 20여만 개 마대를 수송한데 이어 근 5만m 비닐관, 1만 1,000여점의 건재품 및 갖가지 생활필수품 전달

* 철도성 산하 철도국 전투원들도 20여 일간 '51개소 14만 4,000여㎡ 흙과 감탕 처리 및 82개소 16만 2,000여㎡ 철길 노반정리, 120여대 전차선·전주 복구 등 각종 구조물들 복구'(중앙방송)

■ 김책공업 종합대학의 교육설비 현대화사업(전자칠판 제작·200일 전투기간 6,700여 건의 강의안 실용화·종합화·현대화) 등 "교육과학사업 성과" 선전(중앙통신)

09.26(월)

■ 함북 북부 피해를 거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은 전 인민적인 애국사업'이라며 '피해 복구 전선에 총 역량을 집중하면서 충정의 200일 전투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현실적 요구에 맞게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리자)

■ '원산 국제친선 항공축전-16' 개막식(9.24),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윤영석(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축전준비위 성원들, 항공체육 애호가들, 원산시내 근로자들 등 참가
- 송도원 청년 야외극장에서 음악무용 종합공연(9.24)과 원산시 해안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9.25)도 진행

■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9.25),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오수용, 최부일, 로두철, 노광철, 내각 부총리들 등 참가
- 김정은 서한 '지질탐사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전달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9.26), 최태복(黨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최태복(黨 중앙위 부위원장), 전람회 참가 대표단 단장 및 대표들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조직위, 전람회 참가자들을 위해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전람회 참가자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7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개막식(9.26),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출품한 1천여 건의 각종 프로그램들 전시회에 출품

09.27(화)

■ 【「청년동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9.27)】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의 영도 따라 청년동맹 깃발을 휘날리며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데 대해 강조

■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50여 개소 철길 노반 작업 종료 및 6개 철도역 원상 복구(중앙통신)

- 23일 현재 파괴된 철길 478.35km 복구
*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 함경북도 피해 지역에서 공연 활동으로 '피해 복구' 선전선동(중앙방송)
* 北,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선동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 전국 산림 부문 과학기술발표회(9.26~27), 조선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제35차 윤이상 음악회(9.27), 박춘남(문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이상 음악당에서 진행(중앙통신)

09.28(수)

■ 김정은 黨 위원장, 청천강(*평안북도)-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건설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일성의 황해북도 현지지도(황주군 용천 협동농장 등) 4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9.27), 박태덕(황해북도 黨 위원장, 기념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제14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 개막식 진행(청년중앙회관), 최일룡(경공업상)·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김경남(상업상)·박춘남(문화상) 등 참가 및 '일상 옷 등 1,100여점' 출품(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폐막식 진행(과학기술전당), 최태복(黨 부위원장)·김정숙(대외문화 연락위원회 위원장, 폐막 연설) 및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 9월 28일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 및 만경대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안남도(수많은 자재·생활필수품)와 황해북도(식료품·식량과 150만 여점 생활필수품 등), 수해 복구 지원(중앙통신)

* 시멘트 선적 '광명'호 남포항 출항(9.24) 등 남포시의 시멘트 선적 수송선 수해 복구 지역으로 연이은 출항(중앙통신)

* 철도운수 부문과 혜산-삼지연 철길건설 여단, 9월 27일 함북선 개통(중앙방송·노동신문)

* 함북 경흥군 돌격대원들, 살림집 축조공사 60% 계선 추진(중앙방송)

■ 北 선수들(한경령·민해연 등), 2016년 '싸브빠리' 국제 수중 체조 무용경기대회(9.21-24 우즈베키스탄, 9개국 110명 참가) 금메달 4개 쟁취 및 9월 28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9.29(목)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국제 학술토론회 참가자들, 9월 29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위치한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보건 산소공장(평양시 교외에 위치) 조업식(9.29), 박봉주·최태복·김수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가구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9.29), 조선 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평양 건축종합대학에서 진행(중앙통신)

■ 2016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토론회(9.29),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북 북부 피해 지역 도로복구 성과 보도(중앙통신)

- 피해 지역 도로들에 대한 임시 복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었으며 청진-연사, 청진-회령 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의 교통이 회복

■ 왕재산 예술단 지방 순회공연(9.29),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통신)

09.30(금)

■ 김정은 黨 위원장,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안정수(黨 부장), 조용원, 임준길(黨 부부장들) 동행

■ 김정은 黨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 즈음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9.27)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은은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 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이라고 강조하고 대학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세계 일류급 대학의 전열에 올려 세움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표시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국제 학술토론회(9.29~30),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중앙통신)

- 김승두(교육위원장, 축하 연설),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개막 연설) 등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국제 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 및 만경대 방문(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경축공연(9.30),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등 관람

■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경흥군에서 100세대 살림집 미장 공사 추진(중앙통신)

■ 대동강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에서 9월 27일과 28일에 첫 물고기 수확(중앙통신)

■ 제13차 인민 체육대회, 10월 개최 예정(중앙통신)

- 체육단 부문(30여 개 종목)과 대중체육 부문(10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

대남동향

09.01(목)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9월 2일 韓美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8.22-9.2)은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해 보려는 흉계를 추구하는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한 '백서' 발표(중앙통신)

■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9.1)】, 우리 정부의 '북인권법' 시행(9.4)을 앞두고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반발(중앙통신·평양방송)

■ 【「기자동맹 중앙委」 대변인 담화(9.1)】 남한 보수언론들(조선·중앙일보 등)의 '北 200일 전투 성과 악담질, 여명거리 건설 시비 중상' 주장 및 "여론 조작행위, 반북 모략소동"이라고 반발(중앙통신)

-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언론사들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날에는 반드시 온 겨레의 이름으로 계산할 것임

■ 대통령(을지 NSC, 北 사이버테러 등 도발 가능성)과 통일부(테러 ·납치 경계 당부)의 '北 추가 도발·테러 가능성' 발언에 대해 '反北 고취 모략 소동, 날조설'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테러 장본인들의 파렴치한 모략 소동)

* 우리 정부 당국의 '北 테러 가능성' 제기 및 대책 마련(해외 우리 국민들 신변안전 유의,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훈련)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비열한 모략 소동"이라고 재차 비난(중앙통신 논평)

■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연습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 각본, 제도전복 야망 기도"라고 비난 지속(중앙통신·노동신문/합동군사 연습의 침략적 성격은 가리울 수 없다)

* 北, '우리 육군 11사단의 야외 기동훈련 실시(9.1-6, 강원도 화천 등) 예고'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09.02(금)

■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개선특위 회의(8.22)에서의 발언(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등)에 대해 "대결적 망발"이라며 '박OO 역적이나 그 수하의 역적배들이나 한시바삐 죽탕쳐 버려야 할 재앙거리들'이라고 비난(중앙통신/대결의 뿌리에서 돋아난 독버섯들)

09.03(토)

■ 'UFG 합동군사연습은 기습적인 핵 선제 타격을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는 비난과 함께 '외세와 야합한 박OO 패당의 군사적 도발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핵 억제력으로 韓美의 핵전쟁 도발책동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것은 우리(北)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침략자, 호전광들의 본성은 감출 수 없다)

■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공보(9.3)】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南 당국의 통일 대회합 방해책동을 준열히 규탄하고 있다'며 '대회합 제안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회합 성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09.04(일)

■ 朴 대통령의 '北 SLBM 발사 및 인권 개선' 관련 발언에 대해 "대결정책 합리화 및 적대감과 체제대결 야망의 발로, 남조선을 총체적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모면 술책"이라고 비난 지속(중앙통신·노동신문/정의의 뇌성에 덴겁한 정신병자의 지랄발광)

■ 한미 軍의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9.9-11, 인천 월미도 행사장) 계획 인용 보도 및 "패전의 역사는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

09.05(월)

■ 특이동향 없음.

09.06(화)

■ 통일부 장관의 '비핵화 국제회의'(카자흐스탄) 기조연설 발언(북한이 핵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에 대해 '대결부 장관의 푼수 없는 악담질'이라며 '민족의 재앙거리로서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청와대 시중꾼의 푼수 없는 망발)

09.07(수)

■ 【「조국전선 중앙위」 호소문】 주한미군 주둔('45.9.8) 71주년에 즈음하여 '주한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불의와 악의 상징'이라며 '미제의 남조선 강점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아침을 안아오자'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 호소문】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9.7)"을 통해 '지금은 청년들이 조국 통일 대업 성취를 위한 투쟁에 총 매진해야 할 때'라고 남·북·해외 청년단체·청년들의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제안(중앙통신)

■ 통일부 장관의 '北, 핵무기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 제공' 등 발언(8.29 카자흐스탄,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기조발언)에 대해 "동족대결에 미쳐 돌아가는 박○○의 악담 그대로"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09.08(목)

■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 결의문(9.8)】 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전쟁도발 책동 저지 △온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며 '반미 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남조선 강점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며 '괴뢰 보수패당의 친미 사대매국 행위를 끝장내고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화근)

09.09(금)

■ 北, '조선 서해 열점수역에 南 군부깡패들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며 '극도로 모험적인 군사적 도발행위가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09.10(토)

■ 【「민화협」경고장(9.10)】 朴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심각한 균열 조짐·무모한 도발은 자멸 초래·북 변화하면 경제적 지원 가능)을 "우리(北) 제도를 붕괴시킬 체제대결 흉심"이라며 원색 비난 및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위협(중앙통신)

* 朴 대통령의 韓美 정상회담(9.6 라오스, '北 탄도 미사일 등 위협에 대해 미국과 강력대응' 등)에 대해 "헛된 야망(미국이 北에 일방적인 핵공갈을 가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고리타분한 수작"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이다)

■ 【「강제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 상보(9.10)】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 탈북·귀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집단 유인납치,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 조작" 주장 및 남한 각 계층 단체들과 국제 인권기구들의 '송환 노력 협조' 당부(중앙통신·평양방송)

09.11(일)

■ 朴 대통령의 '北 핵, 미사일, 인권 문제' 거론 관련 '주책없는 아낙네의 행실, 정신병자의 넋두리'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외세의 힘을 빌어 제거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려하는 괴뢰 역적 패당의 죄악은 천백배로 결산되게 될 것'이라고 실명 거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마녀의 비루한 구걸행각)

09.12(월)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9.12)】 대통령의 '北 급변사태' 발언에 대해 "정치 문맹자의 해괴한 추태"라며 '오늘 체제 붕괴, 급변사태에 직면한 것은 박OO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인민의 원한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남조선'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최악의 국면에 처한 현 북남관계는 친미사대와 외세 의존에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박OO 패당의 반민족적 망동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박OO 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속에 수치스러운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사대와 외세 의존은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

■ 우리 정부의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9.9, 월미도)에 대해 "반공화국 광대놀음"이라며 '괴뢰들이 제아무리 전승기념식이니 뭐니 하며 역사 왜곡에 열을 올려도 상전과 함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저들의 가련한 몰골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패배자들의 궁상스러운 광대놀음)

09.13(화)

■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9.13)】 朴 대통령과 軍의 '北 5차 핵실험' 대응(北 정권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 ·대량 응징보복 작전계획

등)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우리(北)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핵세례" 위협(중앙통신·평양방송·중앙방송)

- 남한의 '北 인권법' 시행은 "우리(北)의 핵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질겁하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제도 통일' 야망을 인권모략 소동으로 달성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재연 행사(9.9, 월미도)를 '동족대결과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는 해괴한 광대극'이라고 조소(중앙통신·민주조선)

09.14(수)

-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권력야망을 실현하여 매국 반역 정책·동족 대결책동을 계속 이어가려하고 있다'며 '反보수정권' 투쟁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 광신자들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朴 대통령 對北 발언(심각한 균열조짐, 우려수준의 급변상황 등) 관련 '궁지에 빠진 자의 넋두리, 임종전야의 마지막 발버둥질'이라며 '동족대결의 악담질로 살 구멍을 찾아보려 발악하면 할수록 저승길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실명 거론 위협(중앙통신/대결광의 말기 발작증)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우리 정부의 '3축 타격체계 수립계획 등 공개 및 美 B-1B 핵전략 폭격기 한반도 상공 출격' 관련 '핵탄두 폭발 실험을 단행한 것은 韓美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와 함께 '핵 선제 타격' 위협(중앙통신/기회는 우리가 선택한다, 허망한 개꿈을 꾸지 말라)

-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계획(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관련 '군대와 인민은 괴뢰들이 벌려놓는 추악한 삐라 살포와 같은 반공화국 심리 모략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평양방송/추악한 잔명을 부지해 보려는 발광적인 반공화국 삐라 살포행위)

- 경북 경주시 지진 관련 KBS방송을 인용하여 사실 보도(중앙통신)

09.15(목)

-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9.15)】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 관련 '사드로 우리(北)의 핵공격 수단들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라며 '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초래될 것은 무자비한 핵세례 뿐이라는 우리(北)의 경고를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것은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남조선 괴뢰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북과 남, 해외의 통일 애국 역량은 하나로 뭉쳐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09.16(금)

■ 北, 9월 16일 난수방송(01시 16분, 2회 반복) 재개(평양방송)

■ 남·북·해외 청년들은 '김정은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연설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모든 청년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자주·민족대단결 투쟁 및 연대연합 강화'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해내외의 청춘들을 통일애국에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

09.17(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관련 '美 핵우산과 사드는 무진 막강한 핵 억제력, 핵 보복 타격력 앞에서 이미 무맥한 것으로 되었다'며 '박OO 패당은 어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눈앞의 상대에 대하여 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주장(중앙통신/상대를 똑바로 알고 날뛰라)

■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자면 박OO 역적패당을 가차 없이 청산해 버려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즐기는 박OO 패당은 남북관계에 백해무익한 해충과도 같은 존재'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전쟁 광신자들을 징벌하려는 것은 온 민족의 의지)

■ 【「남조선 인권 대책 협회」 백서(9.17)】 보안법·세월호·사드·청년 실업문제 등을 거론 '오늘의 남조선은 민심의 원한과 저주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그 어떤 미래도 행복도 없는 세계 최악의 암흑사회'라며 '썩고 병든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을 안아 올 것'을 선동(중앙통신/남조선은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다)

09.18(일)

■ 특이동향 없음.

09.19(월)

■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9.19)】 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및 군부에서 北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정국을 조성하여 보수 재집권의 출로를 열어보려 한다"고 '反박○○·반미 투쟁' 선동(중앙방송·중앙통신)

■ 우리 軍의 '대량응징 보복개념(KMPR)' 공개 등 北 5차 핵실험 대응에 대해 "군사적 도발 망동이 극단적 지경에 이르렀다"며 '對南 군사적 대응조치 더욱 강도 높게 취할 것'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자멸의 함정을 파는 무모한 망동)

■ 朴 대통령의 對北 발언(심각한 균열조짐·변화유도 등)에 대해 "체제통일 야망"이라고 비난 및 "박○○의 죄악을 결산하고야 말 우리(北) 의지를 천백배로 굳혀주고 있다"고

폭언(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체제대결 광신자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 국군 27사단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9.19-22, 강원도 화천·춘천) 인용 보도 및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09.20(화)

■ '北 인권법' 관련 '北 인권법 시행은 곧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특등 사기극, 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체제통일의 개꿈을 이루어보려는 히스테리적인 망동'이라고 비난 및 '종국적 파멸만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 모략의 도발적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 5차 '핵실험'에 대한 朴 대통령 對北 발언(긴급 대책회의, 고도의 응징태세 유지 등) 관련 '핵 강국으로 솟구치는 공화국의 위용에 얼혼이 나가 정신이 통제 불능 상태로 된 청와대 백치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청와대 백치의 히스테리적 광기)

09.21(수)

■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유엔 제재 결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北)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며 '유엔 제재 결의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쳐갈기며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어리석은 추태)

■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언(北 수뇌부 초토화, 평양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 등)에 대해 '분별없이 날뛰는 부나비의 광적인 망동'이라며 '박OO 패당은 그 어떤 발악으로도 우리(北)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자멸을 재촉하는 무분별한 망동)

■ '우리(北)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당황한 박OO 패당이 그것을 구실로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강행하려고 발광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사드 배치의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매국의 무리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사드 배치는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매국배족 행위인 동시에 더러운 정체를 가리워 보려는 눅거리[19] 기만극'이라며 '사드 배치가 가져다줄 것은 민족적 대재앙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사드 배비가 가져올 것은 민족적 대재앙뿐이다)

19) 눅거리 : 「명사」『북한어』 ① 내용이 보잘것없는 것. 헐하고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싼거리(물건을 싸게 팔거나 사는 일. 또는 그렇게 팔거나 산 물건)'의 북한어.

09.22(목)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9.22)】 韓美의 北 5차 핵실험 대응(수뇌부 제거 언급 및 美 폭격기 B-1B '랜서' 2대 9.21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해 "위임에 따라 결전태세 진입 및 우리(北)의 핵탄이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 것"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박○○ 패당의 '北 수뇌부 제거' 망동은 청와대의 완전 궤멸과 서울 잿더미만을 초래할 것임.
- 만약 미제가 B-1B 따위를 계속 우리 상공에 끌어들이며 군사적 도발의 위험 도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임.

*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군사분계선 근접비행 및 1대 오산 공군기지 착륙)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도발은 제2의 6.25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다"며 '대응조치를 연속적·다발적으로 취할 것'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北赤」 대변인 담화(9.22)】 남한 정부가 보수 언론들(고된 노동 강요·주민들에게 복구 비용 부담 등)을 내세워 '北 함북도 수해를 反北 모략선전에 악용, 동족을 헐뜯고 있다'고 억지 및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대통령과 군의 '北 5차 핵실험' 대응(평양 초토화·전쟁지휘부 제거 언급 및 美 '로널드 레이건'호 참가 한미 연합훈련 예정 등)에 대해 "박○○ 역도의 동족대결 정책은 머지않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을 터트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데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비난(중앙통신/화근거리는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

09.23(금)

■ 朴 대통령 對北 발언(北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 등 관련 '통제 불능의 정신병자'라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를 씨도 없이 짓뭉개버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준엄한 징벌의 시각이 분분초초 다가오고 있다'고 위협 및 '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개꿈)

09.24(토)

■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 문답(9.24)】 '5차 핵실험'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발언(유엔결의 위반, 北 세계 안보의 위협 등)에 대해 '불순하고 온당치 못한 망발'이라며 '정략적 타산만을 앞세워 박OO 친미 보수패당과 배꼽을 맞추고 우리(北)에 대한 제재놀음에 계속 가담한다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대통령의 국무회의(9.13)에서의 대북 발언(고도의 응징태세, 새로운 제재방안, 독자적인 군사대응책 등)에 대해 '히스테리적인 대결발작증'이라며 '괴뢰패당의 대결광기가 절정에 달하면 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파산을 면할 수 없는 반공화국 대결정책)

■ '5차 핵실험' 후 우리 軍의 발언(적 도발하면 그 자리를 적의 무덤으로 만들 것, 도발 시 강력 응징 등)에 대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햇강아지 꼴'이라며 '박OO 패당은 北 수뇌부 제거 망동이 청와대의 완전 궤멸과 서울 잿더미만을 초래케 할 것이라는 우리(北)의 경고를 심중히 대해야 한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제 무덤을 파는 무모한 객기)

※ 北, 9월 25일 난수방송(0시 15분) 재개(평양방송)

■ '남조선은 특권 족속들이 절대 다수 근로 인민 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고 현대판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인권의 불모지'라며 '남조선을 인권 불모지, 지옥으로 만든 박OO야말로 지체 없이 때려잡아야 할 악귀'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현실은 암흑의 인간 생지옥을 고발한다)

09.25(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韓美日 3국 외교장관 회담(9.18 뉴욕) 등 우리 정부의 '북핵 공조'를 '反北 핵 공조 구걸놀음'이라고 폄하 및 '적대 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은 "우리(北)가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초강경으로 다스릴 것이다)

■ 北, 북핵은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을 억제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담보'라며 韓美의 '북핵 위협' 제기는 "역사 퇴물들의 가련한 발악"이라며 '핵 무력 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정의의 핵 무력 위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이 있다)

09.26(월)

■ 특이동향 없음.

09.27(화)

■ '北 인권법' 관련 통일부 조직개편에 대해 '통일부를 완전히 반통일부, 동족 대결부로 공식화했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한 동족 대결부, 반통일부는 개편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개편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 한미의 북핵 사용 임박 시 선제타격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 논의 계획에 대해 "핵전쟁 선전포고"라며 '호전광들이 제창해대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은 백악관과 청와대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는 악몽의 전주곡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핵 선제공격 기도를 드러낸 무모한 망동)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논의에 대해 '조선민족의 천년숙적과 공모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망동으로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09.28(수)

■ 우리 정부의 '北 5차 핵실험' 대응에 대해 "북핵 폐기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술책"이라며 現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긴장관계는 "박○○ 패당의 반공화국 핵소동에 기인된다"고 전가(중앙통신·노동신문/반공화국 핵소동은 북남관계 파괴와 긴장격화의 근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9.18 뉴욕)에 대해서 "조선민족의 백년숙적과 공모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 친일 역적무리"라고 비난 및 '한일 군사협력 강화' 경계(중앙통신·노동신문/천벌을 면치 못할 친일 역적무리)

■ 韓·美 양국의 북핵 대응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합의에 대해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北)를 선제타격 한다는 것을 공언한 사실상의 핵전쟁 선전포고"라며 '美의 對北 선제타격 시도時 先 美 본토 등 선제타격' 강조(중앙통신/핵전쟁 각본의 이행은 연습이 아니다)

* "우리(北)에게 핵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것을 공언한 사실상의 핵전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재차 비난 및 '北의 결전태세 진입 상태 상기 및 韓美 자중, 자숙'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韓·美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합의 및 단계별 내용 공개는 "핵전쟁 선전포고이며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고 '북핵 정당성 부여 및 미국의 對北 선제타격 시도時 美 본토 등 선제타격' 재차 강조 보도(중앙방송)

* 韓·美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합의는 "핵 불소나기를 부르는 자멸행위"라며 "선제타격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위협(평양방송)

■ 韓美 해군의 9월 26일 동해서 '北 지상목표물 정밀타격 훈련' 실시, 연합뉴스 인용 비난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09.29(목)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9.29)】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 발언 관련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반공화국 대결에 미쳐 날뛸수록 역적패당의 완전 파멸만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농근맹」 대변인 담화(9.29)】 백남기씨 사망 관련 '무고한 농민에게 생죽음을 강요한 박OO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만행을 특대형 살인 범죄행위로 낙인한다'며 '농민의 죽음을 철저히 계산할 것'을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발언 관련 '사회전반에 인위적인 위기감을 조성하여 보수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장기 재집권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더러운 속심'이라고 실명 비난(중앙통신/파렴치한 장기 집권 야망)

09.30(금)

- ‘北 인권법’ 관련 통일부 조직개편에 대해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개편 놀음’이라며 ‘겨레에 백해무익한 괴뢰 통일부는 개편이 아니라 당장 해체해버려야 한다’고 지속 주장(중앙통신/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개편 놀음)

-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언들(비상사태, 北정권 끝장낼 각오 등)은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딴 데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려는 음흉한 속심’이라며 ‘박OO 패당이 민심을 오판하고 재집권 책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보수 세력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외동향

09.01(목)

-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 韓美 합동 군사연습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 편지를 8월 30일 유엔총회 및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0/1025- S/2016/734호’로 배포(중앙통신)

- “쁘럭 불가담(비동맹운동)”의 날(‘61.9.1 유고슬로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75.8.25 北 가입) 즈음 ‘쁘럭 불가담 성원국들의 단결과 협조, 강화발전 및 反帝 투쟁’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반제 자주의 이념 아래 걸어온 55년)

- 주북 베트남 대사관, 9월 1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自國 창건’ 71주년 즈음 리길성(외무성 부상)·박경일(北-베트남 친선협회 위원장·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9월 1일 ‘北 정권 창건일(9.9)’ 68주년 즈음 평양 중등학원 참관 및 문수 기능 회복원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9월 1일 슬로바키아 외무 및 유럽관계상(미로슬라브 라이차크)에게 ‘슬로바키아 국경절’ 축전(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 대표단, 9월 1일 北送 비전향장기수 홍명기와 상봉(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대표단·재중 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성원들(「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 8월 31일 여명거리 건설장 방문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방송)

- 이탈리아 여러 정당소속 국회의원 대표단, 과학기술전당·조국해방 전쟁승리 기념관·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적십자·적반월회 국제연맹 총서기 일행, 9월 1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9.02(금)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9.1)】 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對北 제재 반드시 완전히 이행(北 SLBM 발사 관련)' 등 강조 기자회견(8.29)을 "고리타분한 제재 압박 타령"이라며 '자력자강 정신 구현·병진노선 고수' 역설(중앙통신·중앙방송)

■ '미제의 핵 위협 공갈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해 핵공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北)의 입장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이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생존의 출로는 자중, 자숙이다)

■ '美 셔먼호 격침' 150주년을 맞아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며 '셔먼호 사건은 조선 인민의 연전연승과 미국의 연전연패의 전통으로 이어진 조미대결전의 150년 역사의 서막 이었다'고 주장(중앙통신/침략과 패배의 첫 시발점)

일본의 2017년도 역대 최대 규모 국방예산(5조1685억엔) 편성에 대해 '일본의 목적은 우리(北)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무력으로 임의의 시각에 해외 침략의 길에 뛰어 들자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사무라이 후예들의 분별없는 망동)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 베트남 건국일을 맞아 9월 2일 同國 주석·수상·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9월 1일 신임 튀니지 수상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해외 동포 청년들을 위해 김정은이 마련한 연회(9.2), 김영철(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나이지리아 국회 상원 의원, '선군절'(8.25)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보내는 선물을 8월 22일 自國 주재 北 대사에게 전달(중앙통신)

■ 재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단장 : 김영녀 위원장), 만경대 방문 및 청년운동사적관·평천 혁명사적지 등 참관(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北 보건대표단(단장 : 장준상 보건성 부상), '세계 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총회 제69차 회의'(스리랑카) 참가 차 9월 2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이탈리아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 대표단, 9월 2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03(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3)】 '美 핵 잠수함들이 北 전략잠수함들에 대한 추적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며 '전략잠수함들의 대결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美 셔먼호 침몰 150주년 즈음 '미국이 패배의 역사를 망각하고 오산하고 있다'며 '우리(北)에게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핵 불벼락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대통령 선거전 관련 "금전선거"라고 규정하고 '돈으로 대통령 벙거지를 사는 미국의 정치풍토에서 진정한 인권,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중앙통신/'금전유희'-미국 대통령선거)

■ 김정은 黨 위원장, 팔레스티나 대통령의 '광복절' 축전에 대해 8.31일 답전(중앙통신)

* 포르투갈 대통령, 北 정권 수립일(9·9절) 즈음 김정은에게 8.29 축전(중앙통신)

* 김영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망 관련 同國 국회 상원의장에게 조전(중앙통신)

■ 허용복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北 외무성 대표단, 8.29~9.1 모잠비크공화국 방문(중앙통신)

- 방문기간 모잠비크 외무 및 협조성, 농업 및 식량안전성, 바다·영해 및 수산성, 보건성 일꾼들과 회담 및 담화 진행
- 허용복 국장은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

■ 北 인민무력성 대표단(단장: 윤동현 부상, 육군 상장), 러시아 국제 군사기술연단 '군대-2016' 참가 차 9월 3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이탈리아·베트남·중국 대표단들,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 참가 차 9월 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유학생 동맹 대표단(단장: 김현일 중앙 상임위원장), 9월 3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04(일)

■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 참가 여러 나라와 지역 대표단들,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9월 4일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건축가동맹 대표단(단장 : 심영학 위원장), 몽골 방문 후 9월 4일 열차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김용주 중앙 상임위원회 위원장), 만경대 방문 및 청년운동 사적관·평천 혁명사적지·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중앙계급 교양관·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참관(중앙통신)

09.05(월)

■ UFG 합동 군사연습 관련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실현을 노린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온 침략자, 도발자'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무모한 불장난은 종국적 파멸을 앞당길 뿐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韓美 합동 군사연습 관련 '공화국에 대한 무력 정복과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노린 핵전쟁 연습,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화근'이라며 '핵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평화와 안정 파괴의 화근)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TTIP(美-EU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렬 거론 '美 행정부의 대외정책들이 연이어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며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에 기초한 세계제패전략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배격 받고 있으며 그의 총적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미국의 수치-패권 정책의 필연적 산물)

■ '北 여맹 대표단'(단장: 채춘희 「여맹」 부위원장), 국제 민주여성연맹 제16차 대회(콜롬비아)에 참가 차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차건일 駐터키 北 대사, 同國 대통령에게 8월 31일 신임장 전달(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엠마뉘엘 어그)과 일행, 9월 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과 대표들, 北 정권 수립일(9·9절) 즈음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부이사장과 일행, 러시아 주체사상 연구협회 대표단, 몽골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선군정치 연구 네팔 문학연단 대표단, 네팔 선군정치 지지협회 대표단, 태국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 세네갈 대통령, 北 정권 수립일(9·9절) 즈음 8월 30일 김정은에게 축전(중앙통신)

09.06(화)

■ 유럽연합(EU)의 조세 회피 혐의 美 애플에 세금추징 결정 관련 '자기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강요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받아 마땅한 대접'이라며 '미국은 안하무인격의 행위가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날강도가 받아 응당한 대접)

■ '우리(北)는 결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살과 봉쇄 속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실현하였다'며 '미국이 제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의 자위적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다)

■ 【北 정권수립(9.9) 68주년 동향】

* 라오스 주석(분냥 보라치트), 9월 6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인도 대통령(프라납 무커지), 9월 2일 김정은에게 축전(중앙통신)
* 주북 무관단, 9월 6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주북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박영식(인민무력상)에게 전달

*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9월 6일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과 평양 체육기자재공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 구대석 재일본 조선인 교육회장), 9월 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
*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이사 등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과 대표들, 9월 6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본 조선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김용주 위원장),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 후 9월 6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9.07(수)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7)】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9.6)'을 "언어도단"이라고 전면 배격 및 '핵 무력 강화 계속 확대'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외무성」 대변인 담화(9.7)】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71주년 즈음 주한미군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전을 해치는 암적 존재'라고 철수 강조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평화협정 전환'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백악관 대변인의 '北 인권 문제' 발언(8.27)은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흉심"이라며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 배격 및 '北 인권 문제' 제기에 "핵 무력 고도화 노력 강화" 대응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궁지에 몰린 자의 추악한 인권 타령)

■ 국제무대 북한문제 전문가·언론들의 '北 전략 공격무력 빠른 발전 이룩' 보도 인용,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힘의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정책적 실패를 면할 수 없다"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용단'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북 이집트 대사(사미흐 루트피 아브둘하디) 신임장 9월 7일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프랑스 AFP 통신사 사장 일행과 9월 7일 담화(중앙통신)

* 프랑스 AFP 통신사 사장(에마뉘엘 어그) 일행,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개선문·과학기술전당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브라질 대사, '自國 독립' 194주년 즈음 연회 개최(9.7, 대동강 외교단회관),

신홍철(외무성 부상)·심국룡(외교단 사업총국 총국장)·박경일(대외문화 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초대(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보건성, 'WHO 東南亞지역 사무소 보건부문 우수상' 수상(9.5 스리랑카, WHO 동남아지역 총회 제69차 회의 北 보건 대표단 단장 장준상 보건성 부상 인수)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 재중 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9월 7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北 정권수립(9.9) 68주년 동향】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라오스 주석(분냥 보라치트), 김정은에게 각각 9월 7일 및 5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두 부하리)이 보낸 꽃바구니, 만수대언덕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9월 7일 진정(중앙통신)

* 주북 경제 및 무역 참사단, 9월 7일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도 진정

* 외국 선박 선원들 경축 모임, 9월 7일 남포항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대표들, 9월 7일 평양 중등학원·과학기술전당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이사 일행과 부이사장·몽골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태국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선군정치 연구 네팔 문학연단 위원장도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선물 전달

09.08(목)

■ 【「외무성」 대변인 담화(9.8)】 美 대통령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도발·위협' 발언 관련, '핵 무력 강화조치는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의 자위적 조치'라며 '핵공격 능력을 배가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기남(黨 부위원장),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부이사장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9.8) 담화(중앙통신)

* 北, 김기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을 위해 평양 고려호텔에서 연회(9.8)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과 일행, 9월 8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체류기간 AFP통신사 평양 대리지국 개설과 관련한 행사 진행

■ 駐北 쿠바 대사와 성원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과 평천 혁명사적지 참관 및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궁전 예술 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관람(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주체사상 연구 우간다 전국위 위원장, 9월 8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이노키 간지)과 일행,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박준영 학부장), 9월 8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양헌), 9월 8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09(금)

■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9.9)】 美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회의 부보좌관의 대북발언(대북제재 각성을 높일 것, 북한 핵과 미사일 포기 시 사드 배치 재고 등)에 대해 "망발"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은 도리어 우리(北)의 핵공격 능력을 다계단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용호(외무상), 브라질 독립 194주년에 즈음하여 9월 7일 同國 대통령·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

* 김영남, 9월 7일 재선 잠비아 대통령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09.10(토)

■ 미국의 '北, 미국인 대학생(12년 전 중국에서 실종) 납치설' 등 유포는 "심리 모략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5차 핵실험은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위협·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중앙통신/호전광들의 새로운 모략극)

■ 리수용(노동당 부위원장), 방북 안토니오 이노키(일본 참의원 의원) 일행과 9월 10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무력성 대표단(단장 :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육군 상장), 러시아(국제 군사기술 연단 '군대-2016' 참가)에서 9월 10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박해철 「총련」 부국장), 평양 도착(9.10)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9월 10일 만경대 방문 및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청년운동 사적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이탈리아·베트남·독일 대표단(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 참가), 9월 10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권수립(9.9) 68주년 대내외 동향】

* 러시아 주재 北 대사관, 9월 7일 경축 연회 마련(중앙통신)

09.11(일)

■ 【「외무성」 대변인 담화(9.11)】 美 대통령의 對北 핵실험 규탄 성명(추가 제재 등 중대 조처) 관련 '핵전쟁 위험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며 '건드린다면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주장 및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9.11), 시리아 대통령 51회 생일 관련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구대석 재일본 조선인교육회 회장)과 9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

■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대표들과의 친선 연환모임, 9월 11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선군정치 연구협회 위원장, 조일민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을 만나(9.11)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자기 조직들의 활동 정형을 통보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09.12(월)

■ '일본과 남조선 땅을 미국의 전술 핵무기들로 뒤덮고도 모자라 동맹자들을 핵무장에로 부추기고 있는 진짜 핵 범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한반도를 이미 세계 최대의 핵 대결 지대로 만들어 놓은 미국이 그 누구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중앙통신/핵 범죄국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

■ '우리(北)의 핵탄두 폭발 시험은 이 세상 그 어느 열강도 조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라며 '미제가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과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다시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의 대조선 침략사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을 없애 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무진막강한 국력으로 미제의 대조선 침략사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 北,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인 '공업도안의 국제 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 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중앙통신)

- 조약 가입 문건들이 수탁자인 WIPO 총국장에게 6월 13일 제출되었음.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51회 생일 축전을 보내준 김정은에게 9월 11일 답전(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리용호 외무상 일행,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참가 차 9월 12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서호량 유엔개발계획 보조행정관 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일행, 9월 12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들, 9월 12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13(화)

- 日 문부과학성의 각 지방들에 재일 조선인 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과 투명성 조사연구(3.29, 조총련과 조선학교간 매우 밀접) 결과 보고 통지서 하달'은 "조총련과 조선 학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단장 등 北 대표단, 제17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베네수엘라) 참가 위해 9월 13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쿠바 대사, '北 정권 수립(9.9)' 연회 마련(9.13)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김승두(교육위 위원장)·김정숙(대외문화 연락위 위원장) 등 초대(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병두 루마니아 주재 북한 대사, 9월 7일 주재국 대통령(클라우스 요하니스)에게 신임장 전달(중앙방송)

- 장준상(보건성 부상) 단장 등 北 보건 대표단, 세계 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총회 제69차 회의(스리랑카) 참가 후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안토니오 이노키(일본 참의원 의원) 일행, 체류기간 조선인민군 무장 장비관·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등 참관 및 9월 13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참가 러시아·영국·인도·뉴질랜드 국제심사원들, 9월 1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9.14(수)

- 미국의 9월 13일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상공 출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각일각 폭발국면에로 치닫고 있다"고 반응(중앙통신)

- 美, '추가제재' 성명 발표 관련 '美 군사기지들과 전쟁수행 장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움쩍거리기만 하면 선제타격을 가하여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핵 타격능력 강화' 지속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 北 선수들, '이돌-2016' 세계 교예 예술축전(9.8~11, 러시아)에서 체력교예 '다각 전회비행'으로 최고상 수여(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들, 2016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9.6~11, 인도)에서 금메달(2개)과 동메달(1개)를 획득하고 9월 14일 귀환(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리용호(외무상), 니카라과 독립 195주년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중앙통신)
  - 몽골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장, 9월 14일 귀국(중앙통신)

- 이에 앞서 독일 김일성 동지-김정일 동지 노작 연구소조 대표단·영국 선군정치 연구협회 위원장·에스빠냐(스페인) 마드리드 주체사상 연구소조 책임자 귀국

09.15(목)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미제의 대조선 지배 정책의 군사적 집행자'라며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 정세 불안정만을 초래시키는 악의 근원'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남조선 강점 미군은 조선반도 평화의 암적 존재)

■ 【주요인물 동정】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 축전 참가 독일·러시아·스웨덴·중국 등 여러 나라 대표단과 대표들, 9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9.16(금)

■ 미국의 '北 핵무기 개발 위험성 및 핵 도미노 여론화'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 핵 전파국인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적 비난을 우리(北)에게 돌려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북핵은 對北 적대시 정책 등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세계적인 핵 전범자의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 일본 우익 단체들의 '北 핵실험' 관련 총련 중앙회관 앞 시위 난동은 "일본 사회전반에 반공화국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고의적, 계획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중앙통신/반총련 정책이 몰아온 정치적 테러행위)

■ 리용호(외무상),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9.15~16) 연설을 통해 北 5차 핵실험을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 및 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2중 기준적용' 등 UN 안보리의 "불공정"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5차 핵실험은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조선반도 정세가 계속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미국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에 원인이 있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멕시코 대통령(엔리케 페냐 니에토)에게 '멕시코 독립 206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도 멕시코 외무상에게 축전(중앙통신)

■ 서호랑 유엔개발계획 보조행정관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일행, 9월 16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부이사장 일행·인도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스리랑카 자력갱생 연구회 대표단·주체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위원장, 9월 16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9.17(토)

- 라오스 대통령, 김정은에게 함북 북부지역 홍수 피해 관련 위문 전문(9.15) 발송(중앙통신)

- 北 핵실험에 대한 美 對北 발언들(위협, 도발, 성명 등) 관련 '핵탄두 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민 것은 미국이며 오늘에 와서 그 위력 판정을 위한 시험을 하게 만든 것도 미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위적 대응조치들도 연속적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구대석 재일본 조선인 교육회 회장), 만경대를 방문하고 청년운동 사적관과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평양 중등학원 등을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재일 조선인 법률가 대표단(단장: 임경하), 평양 도착(9.17)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9.18(일)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9월 1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 청년 상공회 제20차 총회(9.10),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중앙통신)

09.19(월)

- 일본 우익 단체들의 '北 5차 핵실험' 관련 총련 중앙회관 주변 시위는 '히스테리적 광란극, 고의적·계획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및 '일본 정부의 비호·묵인·조장 등에 대한 책임과 중단' 요구(중앙통신·노동신문/비열하고 파렴치한 반총련 광란극)

- 미국의 '北 5차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해도 우리의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미국의 '자중, 자숙' 주장(평양방송/제재의 칼이 만능은 아니다)

- 미국의 亞-太지역 무력증강(사드 증강 배치 등) 움직임에 대해 "세계제패 야망"이라며 "미국의 무력증강 책동은 지역 나라들의 더 큰 군사적 대응만을 초래하게 될 것" 주장(중앙통신/미국의 전력 확대는 무엇을 노린 것인가)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연설(9.17)에서 '北 5차 핵실험 당위성(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 일환)' 강변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장(중앙통신)

*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개막(9. 17, 베네수엘라) 보도(중앙방송)

■ 중화 전국 기자협회 대표단(단장 : 장연평 베이징 청년보사 사장), 9월 19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9.20(화)

■ 美 對北 발언(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의 최대 장애 등) 관련 '적대 세력의 위협행위에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美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군 기지들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선군조선은 빈말을 모른다)

■ 【「외무성」 대변인 문답(9.20)】 '美 주도의 연합군, 시리아 정부군 기지 오폭' 관련 '이번 공습은 실수가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한 의도적인 침략행위'라며 '미국의 반테러전은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라오스에서의 美 대통령 발언(베트남전 당시 라오스에 투하된 불발탄 제거활동 지원 등) 관련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철면피하고 교활한 궤변으로서 전범국의 정체를 가리워 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미국의 전쟁범죄를 반드시 결산하여야 한다)

■ 김영남,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9월 18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베네수엘라 대통령,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이란·에콰도르·볼리비아·팔레스타인 대통령, 우간다 총리, 엘살바도르 부통령, 니카라과 부통령,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상

* 리용호 외무상,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외무상들을 만나 담화(중앙통신)

- 베네수엘라·짐바브웨·팔레스타인·이집트·수단 외교부 장관, 나이지리아 외무성 국무상, 세네갈 고등교육상, 파키스탄 수상, 쿠바·이란·터키·에리트레아 외무상, 니카라과 외무성 부상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만경대를 방문하고 주체사상탑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등 참관(중앙통신·평양방송)

■ 중화 전국 기자협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박봉주(내각 총리), 네팔 국경절 즈음 9월 20일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평양방송)

-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구대석 재일본 조선인 교육회 회장)·재일동포 조국 방문단(단장: 박해철 총련 중앙상임위 부국장), 9월 20일 귀국(중앙통신·평양방송)

09.21(수)

■ 【「외무성」 대변인 문답(9.20)】 美 국무장관 '北 핵실험'에 대한 對北 발언(도발, 무모한 행동 등) 관련 "흑백을 전도하는 날강도적 망발"이라며 '발악적인 제재 압박소동에 매여 달릴수록 멸적의 보복 의지만 백배해질 뿐'이라고 위협(중앙통신)

■ 아베 日 총리가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 요청'(日 정부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 송금)한 것에 대해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비열한 방법으로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 저열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며 '일본은 돈주머니를 흔들며 치졸하게 놀아대는 수전노의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수전노의 근성을 버려라)

■ 北, 벨라루스에 9월 19일 대사관 개설(중앙통신)

- 대사관 개설식, 北 외무성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진행

* 北 외무성 실무 대표단(단장 : 외무성 국장), 벨라루스 초청에 따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스 방문(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말리 공화국 선포 56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9월 16일 축전(중앙통신)

* 김영남, 아르메니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9월 21일 축전(중앙통신)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친선 유희 오락경기(9.21), 대성산 유원지에서 진행(중앙통신)

09.22(목)

■ 北, '핵 보유 및 5차 핵실험 정당화(전쟁방지·평화수호 힘 및 미국 등 위협·제재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 강변 및 미국 등 대북 제재강화 발언 등 움직임에 대해 "얼빠진 넋두리, 자멸행위"라며 '핵 세례'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정의의 핵마치)

■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 9월 5일 김정은 黨 위원장에게 '함북도 폭우 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인 법률가 대표단(단장 : 임경하), 과학기술전당과 평양 육아원·애육원·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평양 중등학원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형수)·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단장 : 윤태길 이바라기 조선 초중 고급학교 교장), 9월 22일 각각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9월 22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9월 22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9.23(금)

■ 日 우익단체의 총련 탄압(여러 대의 방송차를 총련 중앙회관 주변에 배치하고 탄압 및 회관 진입 시도 등) 관련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당국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화된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을 중단할 것' 요구(중앙통신·민주조선)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윤태길 이바라기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중화 전국 기자협회 대표단(단장: 장연평 베이징 청년보사 사장), 9월 23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在日 조선인 법률가 대표단(단장: 임경하), 9월 23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24(토)

■ 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 제71차 회의(9.23)에서 '핵 무력 강화' 주장 연설(중앙통신)

- 우리가 핵 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핵 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노선임.
-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北)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 될 것임.

* '미국이 우리(北)를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위협을 가해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기를 보유·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이 섬멸적 타격을 피하는 길은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자숙하는 것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동방의 핵 강국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 일본 항공자위대와 영국 공군의 첫 합동훈련 실시(10월 중순, 일본 상공) 계획에 대해 '군국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일환'이라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 책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고 비난(중앙통신/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 【주요인물 동정】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 대표단·대표들, 9월 24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단장 : 제리 필레이 총회장), 9월 24일 평양에 도착하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여맹」대표단(단장 : 채춘희 여맹 부위원장), '국제 민주여성 연맹 제16차 대회'(콜럼비아) 참가 후 9월 24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 여러 나라 대표단·대표들·국제 심사원들, 9월 24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25(일)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단장 등 北 대표단(베네수엘라,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참가), 9월 24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 9월 2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중국 국가보도출판·라디오 ·영화 및 TV 방송총국 대표단과 환경교육 보급계획 집행국장 등), 해당 부문 일꾼 통해 '김정은 선물'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09.26(월)

■ '핵실험' 성공 등을 거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조미 핵 대결전에서 미국은 대참패를 당하였으며, 힘의 대결에서 우리(北)는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였다'는 주장 속에 '미국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은 對北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는 조미대결에서 또다시 승리하였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北, 국제사회 위협'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며 '공화국은 국제사회를 위협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녁은 미국'이라고 위협(중앙통신/국제사회의 적은 미국이다)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 9.22~25 베트남 공식 방문(중앙통신)

- 방문기간 베트남 외무성 부상 의례 방문 및 외무성 동북아시아국 국장과 국제기구국, 아세안국 일꾼들과 의견교환

■ 【주요인물 동정】

- 러시아 연해변강(연해주) 행정부 부장관(세르게이 네하예브), 9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
- 라오스 고위 청년대표단(단장: 쏜타누 탐마웡 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 비서), 9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9.27(화)

■ 【국제문제연구소 비망록(9.26)】 '인류 역사에 피로 얼룩진 만고의 핵 범인 미국의 죄악을 고발한다'며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모든 것을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北,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 성공은 우주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일대 사변'이라며 '세계는 우리(北) 조국의 위대한 모습을 땅위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

우주에로 치솟는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기상)

-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참가 리용호(외무상), 싱가포르·태국·몽골·앙골라·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 외무상들과 담화(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9.7)】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의 규탄 공보문 배격 관련)을 유엔총회 및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A/70/1037- S2016/771호'로 9월 26일 배포(중앙통신)

- '2016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9.27),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앙통신)
  - 조성걸(국가관광총국 총국장),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참가

- 알제리 대통령(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김정은에게 9월 15일 '함경북도 홍수 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

-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단장 : 제리 필레이 총회장),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과학기술전당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총련」 조선대학교 대표단(단장 : 강성은 부학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경축행사 참가하기 위해 9월 27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 70주년 국제 학술토론회 참가할 러시아·중국·프랑스 등 대표단·대표들, 9월 27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형수), 9월 27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9.28(수)

- 【「외무성」 대변인 중통 대답(9.28)】 최근 주요 국제회의(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77개 집단 외무상 회의) 참가 국가들이 '유엔의 對北 제재(북핵 문제 등) 배격 및 철회 요구 등 北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 표시'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北 5차 핵실험' 관련 전략 핵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는 '對北 핵 선제타격을 위한 것'이라며 "조선반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핵전쟁 발발국면에 빠져들게 한 것은 미국"이라고 책임 전가(중앙통신·노동신문/정세악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28일 라오스 고위청년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고위청년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조선인민군 무장 장비관·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월 28일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과 담화(중앙통신)

- 방북 러시아 연해변강(연해주) 행정장관, 9월 28일 해당 부문 일꾼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09.29(목)

■ 美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출동 관련 '제 죽을 줄 모르고 해 덤비는 우둔한 자들의 추태로밖에 보지 않는다'며 '힘의 논리를 우리(北)에게 시험해 보려 한다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자주의 핵 강국의 승리적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日 우익단체들의 총련 탄압 관련 "분별을 잃은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당국이 비열하게도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며 '겨레의 운명과 생존권을 우롱하려 드는 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눈뜬 소경, 열린 귀머거리들의 무분별한 망동)

■ 중국 정부, 함경북도 북부지역 피해 관련 '지원물자 무상기증' 결정(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홍십자회와 駐北 대사관에서 지원 사업 진행

■ 리수용(黨 중앙위 부위원장), 신임 駐北 이집트 대사와 9월 29일 담화(중앙통신)

■ 리용호(외무상)를 단장으로 하는 '北 대표단',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참가 후 9월 29일 귀국(중앙통신)

■ 러시아 연해변강(연해주) 행정부 부장관 등 외국손님들, 금수산태양궁전(9.29) 참배(중앙통신)

* 러시아 연해변강 행정부 부장관, 만경대를 방문하고 대동강 과수종합농장·돼지농장,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등 참관 및 해방탑에 헌화(중앙통신·평양방송)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 再 선거된 가봉 대통령에게 9월 29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고위 청년대표단·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 9월 29일 귀국(중앙통신)

09.30(금)

■ 【주요인물 동정】

- 北 중앙재판소 대표단(단장 : 리명남 부소장), 국제법률연단(러시아)에 참가하기 위해 9월 30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연해변강(연해주) 행정부 부장관(세르게이 네하예브) 일행, 9월 30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 러시아 과학원 원동 분원대표단·아일랜드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9월 30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금월의 약사

- **09.01** 아시아태평양 방송동맹 가입('91년)
- **09.02**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개막('48년)
- **09.02** 비전향 장기수(63명) 판문점 통해 송환('00년)
- **09.03**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공식 방북('01.9.3.~5.)
- **09.04** 북한-멕시코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설정 합의('80년)
- **09.04**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90.9.4.~7, 서울)
- **09.05** 교육절 ('77.9.19. 제정)
  ※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77.9.5.) 기념
- **09.0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최('98년)
  ※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 **09.06** 중앙인민위원회, 3대 혁명 붉은기 제정('77년)
- **09.06** 유도 계순희에 노력영웅 칭호 및 '국가훈장 제1급' 수여('01년)
- **09.07**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98년)
- **09.08** 최고인민회의, 합영법 채택('84년)
- **09.0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북한 헌법 채택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구성 △김일성 내각 구성('48년)
- **09.09** 북한 정권 창건('48년) - 김일성, 북한 정부 정강 발표
- **09.09** 주체연호 공식 사용 개시('97년) ※ '97.7.8. 주체연호 제정
- **09.10** 제7차 77그룹 아주지역 각료회의 개최('96.9.10.~12, 평양)
- **09.10** 북-러 상호 우호 및 원조 조약 시효 만료('96년)
  ※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 체결('00.2.9.)
- **09.11** 노동당 제4차 당 대회 개최('61.9.11.~18, 평양)
  - 경제 7개년 계획 평화통일 선언 채택, 노동당 규약 개정
- **09.12** '붉은 청년 근위대' 창설('70년)
  ※ 고등중학교 5~6학년(만15~16세) 대상 학생군사 조직
- **09.12**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02년)
- **09.13** 북한 영공 남한 민항기에 개방 합의('96년)
- **09.13** 단군민족 통일협의회 제7차 전원회의 개최('01년, 평양)
- **09.13**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02.9.13.-18, 금강산)

- **09.14** 김용순 노동당 비서, 서울 방문('00.9.11.~14.)
  ※ 남북 정상회담 대표언론사 방북단 등에게 송이버섯 전달
- **09.15** 상업절('71.11.6, 제정)
- **09.15** 김일성종합대학 개교('46년)
- **09.15** 남북 선수단,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00년)
  - 계순희(여자유도 52kg급) 동메달 획득
- **09.15**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01.9.15.~18, 서울)
- **09.16**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74년)
- **09.17**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91년, 유엔 제46차 총회)
- **09.17**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92.9.15.~18, 평양)
  - 3개 분야(화해불가침 교류협력) 부속 합의서 및 화해 공동위 구성 운영 합의서 채택발효
- **09.17**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02년)
- **09.18**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96년)
- **09.18**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강령 규약 개정 발표('01년)
- **09.18**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02년)
- **09.20** 피복 공업절('98.2.4. 제정)
- **09.20** 제2차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00년, 금강산)
- **09.22** 김정숙(김정일 生母) 사망('49년) ※ 1917.12.24.~1949. 9.22.
- **09.24** 전기절('71.9.15. 제정)
- **09.24** 유엔 구주사무소 개설('74년, 제네바)
- **09.24** 백두산 향도봉-천지 구간 케이블카 준공('95년)
- **09.24** 단군민족 통일협의회 발족('97년)
- **09.24** 제8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전람회'('12.9.24~27)
- **09.25** 경원선 고산-평강 간 개통('54년)
- **09.25** MBC 공연단 평양공연('02.9.25~9.30)
- **09.25**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개최('12.9.25)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등
- **09.27**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00.9.27.~9.30, 제주도)
- **09.28** 노동당-일본 자민당-사회당 3당 공동선언 발표('90년, 평양)
- **09.28** 통일 농구대회 개최('99년, 평양)
- **09.29** 평양 사범대학 개교('48년)
- **09.29**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02.9.29.~10.14.)
- **09.30**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00.9.27.~9.30, 제주도)